





전북교육 2023-324  
교육정책연구 2023-003

#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연구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 정 훈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연구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3-324

전북교육정책연구 2023-003

---

발행일 : 2023년 7월 4일

발행인 :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장 장 익

기획총괄 :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한숙경

발행처 :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 (우54927)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전화 : 063-250-3837

팩 스 : 063-250-3769

이 메 일 : eduhun@jbedu.kr

I S B N : 979-11-91269-55-0

인 쇄 : (유)협성사 (063-277-0211)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라북도교육청 및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만든 사람들

### 연구책임

김정훈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주무관

### 연구협력

김연임 전북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이혜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협력과 주무관

안선민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장학사

### 연구자문

서길주 전주용덕초등학교 교장

김혜란 전라중학교 교감

# 연구요약

##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는 경제논리와 맞물려 지역의 경제활동과 생활의 편리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원도심의 경우, 신도심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과 학생 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해당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최종적으로 원도심이 쇠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22. 4. 1. 기준 원도심학교 초등학생 수는 최근 5년간 11.5%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시 지역(전주, 군산, 익산) 초등학생 수는 3.4% 감소하였다. 이를 비교할 때 원도심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 3. 2. 기준 전주·군산·익산 지역 46개 원도심 초등학교의 전체 교실 1,208실 중 유휴교실은 240실로 전체 교실의 19.9%를 차지한다. 이 중 9개 학교는 유휴교실수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도심 지역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부족과 공공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공시설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철학자 Edward G. Olsen은 1930년대부터 시작한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 이론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과 봉사가 학교로 흘러가는 동시에, 학교의 자원과 봉사 또한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친근한 장소이고, 도시의 공개공지(open space)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문화, 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지원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지역의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우리나라처럼 좁은 면적의 나라는 학교시설의 개방과 복합화가 점차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유희시설의 대부분이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배드민턴, 축구 등 일부 생활체육 차원에서의 제한적인 활용만 되고 있을 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유희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의 활용이 필요하다.

학교 유희시설의 활용방안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도심 공동화에 의한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학교의 미래교육 공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며, 돌봄·방과후 기능을 강화하고, 세대 간 교류 촉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학교와 지역이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도심학교의 시설 활용 방안 중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 더불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수립 시 이론적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가. 이론적 배경 검토 및 원도심학교 현황 분석

학령인구 현황, 학교 현황 및 학교시설, 학교 유희시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원도심학교 현황을 분석하였다.

### 나.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 및 효과, 시사점 제시

- 학교복합시설의 개념, 제도적 기반 및 현황, 유형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 및 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도심 공동화에 의한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도심학교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학교의 미래교육 공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며, 돌봄·방과후 기능을 강화하고, 세대 간 교류 촉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들은 학교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임에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에 맞춰진 시설들로 이루어진 복합화가 많다. 따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 시설이 학교에 침범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더불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이라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복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복합시설의 설치가 학생을 위한 동선, 구조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운영,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 이들의 공간 영역 구축과 이에 따른 복합시설 건축의 계획적 관점, 안정성과 접근성, 복잡한 행정 절차 업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 구성 및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시작 단계인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담당자는 물론이고 부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복합화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밝고 넓은, 열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내부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이용하여 더 이상 학교가 어두운 공간이 아닌 밝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CCTV와 같은 예방 안전시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둔 복합화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연계·협력함으로써 원도심학교가 원도심 지역의 중심 시설로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023년~2027년)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주·군산·익산 원도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방과후·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합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함과 동시에 학교가 도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학교복합시설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교육청 담당자의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그친다면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수요 조사, 설계부터 추후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까지 세밀한 검토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합화의 기획 단계부터 학교 관계자, 행정전문가, 건축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후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학교가 아닌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해야 한다.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서는 복합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양한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가 어떤 시설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여섯째,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해야 한다. 생활체육 시설, 주차장 시설 위주의 복합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교육, 보육, 문화, 예술, 복지, 녹지 시설 등을 갖추어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복합화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장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덟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 및 지자체 관계자, 학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의 구축을 통해 원도심학교의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를 결심해야 하는 요인을 조금은 줄일 수 있고, 학교로 인해 지역이 활기가 넘치고 밝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목 차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 내용 ..... 6
- 3. 연구 방법 ..... 6

### II. 이론적 배경

- 1. 학령인구 현황 ..... 9
- 2. 학교 현황 ..... 11
- 3. 학교시설 ..... 15
- 4. 학교 유희교실 개념 및 현황 ..... 18

### III. 원도심학교 현황

- 1. 원도심학교 정의 및 현황 ..... 23
- 2. 원도심학교 학령인구 현황 ..... 25
- 3. 원도심학교 유희교실 현황 ..... 31
- 4. 시사점 ..... 37

## 목 차

### IV.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학교시설 복합화-

1.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 .....	41
2.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 및 효과 .....	45
3.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적 기반 .....	49
4.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	60
5.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및 종류 .....	68
6. 학교시설 복합화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70

### V. 결론

1. 제언 .....	105
2. 결론 .....	107

참고문헌 .....	109
------------	-----

## 표 목 차

〈표 II-1〉 초등학교 현황 .....	12
〈표 II-2〉 중학교 현황 .....	13
〈표 II-3〉 고등학교 현황 .....	14
〈표 II-4〉 연도별 학교시설의 주요 특징 .....	17
〈표 II-5〉 유휴교실의 구분 .....	18
〈표 II-6〉 시·도 교육청 유휴교실 현황 .....	19
〈표 III-1〉 원도심학교 현황 .....	24
〈표 III-2〉 원도심학교 저소득층 비율 현황 .....	24
〈표 III-3〉 전라북도 초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동 현황 .....	26
〈표 III-4〉 전라북도 초등학교 향후 5년간 학생 수 전망 .....	27
〈표 III-5〉 전주시 원도심 초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동 현황 .....	28
〈표 III-6〉 군산시 원도심 초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동 현황 .....	29
〈표 III-7〉 익산시 원도심 초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동 현황 .....	30
〈표 III-8〉 전라북도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	32
〈표 III-9〉 전주·군산·익산 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	33
〈표 III-10〉 전주시 원도심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	34
〈표 III-11〉 군산시 원도심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	35
〈표 III-12〉 익산시 원도심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	36
〈표 IV-1〉 학교시설 복합화의 도입 가능한 대상 시설 .....	42
〈표 IV-2〉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개방 비교 .....	43
〈표 IV-3〉 학교시설 복합화 효과 .....	49
〈표 IV-4〉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법률 .....	56
〈표 IV-5〉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 .....	63

## 표 목 차

〈표 IV-6〉 지역별 학교복합시설 현황 .....	64
〈표 IV-7〉 학교급별 학교복합시설 현황 .....	64
〈표 IV-8〉 지역별 학교복합시설 시설 구성 현황 .....	65
〈표 IV-9〉 지역별 학교복합시설 건물 소유 현황 .....	66
〈표 IV-10〉 복합화 시설의 유형 및 종류 .....	68
〈표 IV-11〉 복합화 시설의 유형 및 종류의 재분류 .....	69
〈표 IV-12〉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	78
〈표 IV-13〉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 .....	79
〈표 IV-14〉 시키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개요 .....	81
〈표 IV-15〉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화 시설 개요 .....	83
〈표 IV-16〉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개요 .....	91
〈표 IV-17〉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화 시설·관리 운영 주체별 역할 .....	91
〈표 IV-18〉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화 주요 시설 .....	92
〈표 IV-19〉 서울언남중·고등학교 복합화 사업 개요 .....	93
〈표 IV-20〉 서울언남중·고등학교 복합화 주요 시설 .....	94
〈표 IV-21〉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개요 및 구성 .....	95
〈표 IV-22〉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관리·운영 주체별 역할 .....	97



## 그림 목차

[그림 IV-1]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도 .....	44
[그림 IV-2] 블랙버드 레이즈 커뮤니티 스쿨 학교 평면도 .....	72
[그림 IV-3] 크레스트우드 중학교 배치도와 전경 .....	73
[그림 IV-4] 크레스트우드 중학교 1층, 2층 평면도 .....	74
[그림 IV-5] 크레스트우드 중학교 중앙물의 모습들 .....	75
[그림 IV-6] 시키초등학교 단면도와 배치도 .....	81
[그림 IV-7] 시키초등학교 교사동 내부와 커뮤니티 가로 .....	82
[그림 IV-8]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화 시설 구성도 .....	84
[그림 IV-9]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화 시설 모습 .....	85
[그림 IV-10] 초와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모습 .....	86
[그림 IV-11]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 전경과 외부 가로에서 본 학교시설 .....	87
[그림 IV-12]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 1층 평면도 .....	87
[그림 IV-13]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 내부 중정과 공중 데크 및 수영장 .....	88
[그림 IV-14] 서울금호초등학교 조감도 .....	90
[그림 IV-15] 서울언남고등학교 전경 .....	94
[그림 IV-16]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전경 .....	96
[그림 IV-17] 중리초등학교 전경 .....	98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연구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 I. 서론

##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연구의 필요성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는 경제논리와 맞물려 지역의 경제활동과 생활의 편리성을 떨어뜨리고, 특히 원도심 지역은 신도심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과 학생 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어, 해당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최종적으로 원도심이 쇠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2015학년도에 원도심학교 45교 지정을 시작으로, 2023학년도에는 59교를 원도심학교로 지정하고 매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원도심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및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지역과의 유기적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다(전라북도교육청, 2023).

2022. 4. 1. 기준 원도심학교 초등학생 수는 최근 5년간 11.5%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시 지역(전주, 군산, 익산) 초등학생 수는 3.4% 감소하였다. 이를 비교할 때 원도심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8~2022 교육행정자료).

이러한 원도심의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는 학교에 유휴교실을 발생시키고, 학교 통합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인석, 2019).

2023. 3. 2. 기준 전주·군산·익산 지역 46개 원도심 초등학교의 전체 교실 1,208실 중 유휴교실은 240실로 전체 교실의 19.9%를 차지한다. 이 중 9개 학교는 유휴교실수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도심의 경우,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부족과 공공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공시설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인석, 2019).

교육철학자 Edward G. Olsen은 1930년대부터 시작한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 이론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과 봉사가 학교로 흘러가는 동시에, 학교의 자원과 봉사 또한 지역사회로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친근한 장소이고, 도시의 공개공지(open space)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문화, 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지원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지역의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인석, 2019). 또한 우리나라처럼 좁은 면적의 나라는 학교시설의 개방과 복합화가 점차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김경희, 2015).

그럼에도 현재 학교 유휴시설의 대부분이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배드민턴, 축구 등 일부 생활체육 차원에서의 제한적인 활용만 되고 있을 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유휴시설은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의 활용이 필요하다(정이성, 2016).

지역사회 구성원의 필요 및 요구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사회가 복잡해져 감에 따라, 사회와 지역에서 학교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학교시설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황성혜, 2010).

학교 유휴시설의 활용방안으로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국민생활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공급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전략 8대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유인자, 2021).

또한 교육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2023. 1. 5.) 10대 핵심정책 중 ⑧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과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교육부, 2023b)은 도심 공동화에 의한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이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학교의 미래교육 공간 구축 및 지역주민

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며, 돌봄·방과후 기능을 강화하고, 세대 간 교류 촉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학교와 지역이 더불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020. 3. 24.)이 2021. 3. 25. 시행되었으며, 6개 교육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및 4개 기초자치단체(창원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다.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좋은 원도심학교의 시설 활용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특히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개념, 필요성,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봄으로써, 학교의 주인인 아이들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족하는, 원도심학교와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원도심학교의 시설 활용 방안 중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 더불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인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수립 시 이론적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연구 내용

### 가. 이론적 배경 검토 및 원도심학교 현황 분석

학령인구 현황, 학교 현황 및 학교 시설, 학교 유휴시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원도심학교 현황을 분석하였다.

### 나.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 및 효과, 시사점 제시

- 학교복합시설의 개념, 제도적 기반 및 현황, 유형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 및 효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3 연구 방법

### 가. 문헌조사

학교시설 및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실태 및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였으며,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교육학, 건축학 관련 서적 및 논문, 학술지, 연구보고서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 나. 사례조사

학교시설 복합화의 사례로 국외는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남도 당진시의 학교 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연구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 Ⅱ. 이론적 배경

1. 학령인구 현황
2. 학교 현황
3. 학교 시설
4. 학교 유휴교실 개념 및 현황



## II. 이론적 배경

### 1

### 학령인구 현황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뒹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1980년대),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2000년대). 시대별 표어를 통해 드러나는 정부의 인구 정책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십 년 만에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1만 명에서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3년 5,155만 명, 20년 후인 2043년 4,955만 명, 2070년에는 3,766만 명(1979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인구성장률은 2021~2035년까지는 -0.1%, 이후 속도가 매우 빨라져 2070년에는 -1.24%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 점차 인구가 감소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세계 인구는 2022년 79억 7천만 명에서 2070년에는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2).

출생아는 1970년 101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27만 명, 2070년에는 2020년의 71.5% 수준인 20만 명으로 감소한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 1980년 2.82명, 2000년 1.48명 2023년 0.73명으로 초저출산율(1.3명 미만)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망자는 2020년 31만 명에서 2070년에는 2020년의 2.3배 수준인 7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통계청, 2021).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총인구의 15.7%)으로 이미 고령사회(총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하였고 2023년 950만 명, 2025년 1,058만 명으로 초고령사회(총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며, 2070년에는 1,74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구성 비율이 2070년 1,747만 명까지 증가하여 총 인구의 46.4%를 차지하는데 비해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70년 20.1%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2).

또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7년이 걸렸으나 일본 10년, 영국 50년, 오스트리아 53년 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장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매경헬스, 2022).

학령인구(6~21세)는 2020년 789만 명에서 2070년에는 불과 50년 만에 461만 명이 감소된 328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 272만 명에서 2030년에는 2020년의 58.5% 수준인 159만 명으로 감소하고, 중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 136만 명에서 2030년에는 2020년의 84.4% 수준인 115만 명으로 감소하며, 고등학교 학령인구는 2020년 139만 명에서 2030년에는 2020년의 95.3% 수준인 13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21).

전라북도 학령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2년 162,816명, 2022년 91,290명으로 20년간 69,904명( $\Delta 43.9\%$ )이 감소하였으며 2027년 도내 예상 학생 수는 64,980명으로 2022년 대비 28.8%인 26,310명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농촌지역과 원도심 지역은 인구소멸 문제, 개발 지구는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등 학생 이동에 따른 교육 여건 불균형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라북도교육청, 2022b).

도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현행 기준 유지 시 2023학년도 학생 수는 3,639명 감소하여 123학급( $\Delta 2.5\%$ )이 줄어들 전망이며, 이후 매년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2027학년도에는 964학급( $\Delta 19.8\%$ )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라북도교육청, 2022b).

도내 중학교 학생 수는 2017년 53,303명 대비 2022년 49,805명으로 4,218명( $\Delta 7.9\%$ )이 감소하였고, 향후 5년간 학생 수는 5,231명( $\Delta 11\%$ )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 유지 시, 학급수는 2022년 2,051학급에서 2027년 1,919학급으로 132학급( $\Delta 6\%$ )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전라북도교육청, 2022c).

2

학교 현황

국가통계자료를 기준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 수 및 학급 수, 학생 수, 교실 수 현황을 살펴보면, 10년간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수 증가(268교), 학급 수 증가(5,109개), 교실 수 증가(49,958개), 학생 수 감소( $\Delta$ 287,717명)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의 경우 학교 수 증가(96교), 학급 수 감소( $\Delta$ 3,131개), 교실 수 증가(27,503개), 학생 수 감소( $\Delta$ 500,666명) 현상을 보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수 증가(70교), 학급 수 감소( $\Delta$ 3,280개), 교실 수 증가(35,040개), 학생 수 감소( $\Delta$ 657,739명) 현상을 보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실 수도 증가하는 반면, 학령인구와 관련이 있는 학생 수는 크게 감소하며, 이에 따라 학급 수도 교실 수 증가에 비해 매우 적은 증가 수를 보인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수와 교실 수가 증가하지만, 학생 수와 학급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향후 학교시설에 발생하는 유휴시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표 Ⅱ-1〉 초등학교 현황

(단위: 개, 명)

사도	2012년				2022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실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실수
총계	5,895	121,393	2,951,995	127,214	6,163	126,502	2,664,278	177,172
전북	413	5,284	112,640	5,874	421	5,169	91,290	8,039
서울	594	19,648	502,000	20,569	609	18,367	393,565	24,919
부산	299	7,250	172,069	7,590	304	7,105	154,858	10,121
대구	217	5,965	146,899	6,046	233	5,479	121,485	7,707
인천	236	6,740	164,928	7,127	260	7,091	155,906	9,612
광주	148	4,076	102,912	4,330	155	4,015	83,929	5,393
대전	143	3,986	98,665	4,141	149	3,846	76,960	5,020
울산	119	2,869	71,544	3,012	121	3,105	66,450	4,226
세종	-	-	-	-	52	1,587	32,230	2,239
경기	1,176	28,664	775,163	29,750	1,320	32,768	767,346	45,456
강원	352	4,374	88,865	4,529	349	4,257	71,530	6,052
충북	259	4,244	94,507	4,417	256	4,376	83,827	6,233
충남	427	5,867	127,260	6,167	411	6,242	118,228	8,861
전남	427	5,424	107,133	6,011	426	5,381	90,238	8,471
경북	484	6,644	144,918	6,939	473	6,598	127,385	9,830
경남	491	8,683	202,320	9,007	510	9,216	187,423	12,582
제주	110	1,675	40,172	1,705	114	1,900	41,628	2,411

출처: kosis, 2022.10.17.

〈표 II-2〉 중학교 현황

(단위: 개, 명)

사도	2012년				2022년			
	학교수	교실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급수	학생수
총계	3,162	59,362	57,086	1,849,094	3,258	86,865	53,955	1,348,428
전북	208	2,486	2,370	72,040	211	3,961	2,143	49,084
서울	379	10,467	9,848	315,241	390	13,710	8,499	205,387
부산	170	3,757	3,630	114,936	170	5,536	3,045	74,941
대구	123	3,059	2,880	98,316	125	4,139	2,600	61,975
인천	133	3,118	2,992	103,593	142	4,560	2,995	78,827
광주	86	2,004	1,945	66,937	92	2,918	1,803	43,586
대전	88	1,953	1,878	61,598	89	2,705	1,648	40,303
울산	61	1,588	1,504	47,785	64	2,085	1,321	32,966
세종	-	-	-	-	27	1,090	643	14,809
경기	594	14,027	13,397	463,600	653	20,355	13,711	380,345
강원	163	1,824	1,877	56,162	161	2,586	1,640	37,922
충북	130	2,026	1,944	59,452	128	3,017	1,827	42,601
충남	193	2,579	2,490	76,604	185	3,862	2,376	59,883
전남	246	2,433	2,362	69,647	250	4,316	2,136	46,826
경북	279	3,060	3,152	91,614	261	4,751	2,977	63,810
경남	266	4,218	4,104	127,510	265	6,152	3,817	95,037
제주	43	763	713	24,059	45	1,122	774	20,126

출처: kosis, 2022.10.17.

〈표 II-3〉 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 명)

사도	2012년				2022년			
	학교수	교실수	학급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급수	학생수
총계	2,303	62,176	59,077	1,920,087	2,373	97,216	55,797	1,262,348
전북	132	2,600	2,495	75,006	133	4,505	2,269	48,265
서울	317	11,028	10,509	344,391	320	15,822	9,056	207,388
부산	143	4,228	4,088	126,984	142	6,408	3,433	70,161
대구	92	3,201	3,098	105,968	94	4,730	2,698	59,373
인천	119	3,600	3,403	107,592	127	5,583	3,172	71,760
광주	67	1,979	1,900	67,576	68	3,135	1,748	41,693
대전	61	1,895	1,867	63,496	62	2,980	1,836	39,153
울산	52	1,470	1,463	50,964	57	2,433	1,323	29,557
세종	-	-	-	-	21	1,096	505	11,484
경기	433	14,428	13,477	462,490	486	21,362	13,991	340,895
강원	117	2,047	1,919	56,519	115	3,568	1,764	36,821
충북	84	1,922	1,844	60,067	82	3,106	1,711	39,112
충남	118	2,664	2,494	78,005	117	4,471	2,402	56,081
전남	157	2,651	2,532	72,106	144	4,493	2,299	44,913
경북	192	3,499	3,243	95,917	185	6,133	3,111	62,986
경남	189	4,220	4,061	129,209	190	6,241	3,767	84,613
제주	30	744	684	23,797	30	1,150	712	18,093

출처: kosis, 2022.10.17.



## 3

## 학교시설

## 가. 학교시설의 개념

학교시설이란 원활한 교육 활동 수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 등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요소를 포함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이라 할 수 있다(정이성, 201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른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및 실습지
-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개정 2022.11.29. 시행 2022.12.1.) 제1조의2(기타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교의 교사대지·체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 안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는 각급 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 제3조(교사)

- 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 나. 학교시설의 시대적 변천 과정

시대별로 학교시설이 변천되는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 연도별 학교시설의 주요 특징

연도	주요 특징
1950년대 이전	학교시설의 양적 확보(식민지 교육, 미군정·전시체제)
	재래식 화장실, 조적조, 난방 및 전등 미설치
1960년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로서 녹지 공간 및 공공시설 제공
	조적조, 갈탄 난로
1970년대	철근콘크리트조, 태양열 일부 설치, 전등 설치
	표준설계도 보급 및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
1980년대	제1차 교육환경개선사업 실시
	수세식 화장실, 조립식 건축 시도
1990년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1997.9.23.)
	철골조 등 현대화 학교 건립, 조도 및 냉·난방 개선
2000년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2007.5.2.)에 따른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근거 마련
	국내 최초 학교 복합시설(서울금호초등학교)
2010년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2018.1.9.)
	영역 단위 및 학교 단위 공간혁신 추진
2020년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0.3.24.)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설치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다양한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출처: 교육부(2008), 교육부(2021a), 교육부(2021b)의 자료를 재구성함

4

학교 유희교실 개념 및 현황

가. 유희교실 개념

유희시설이란 학교에 있는 유희 공간 중 학습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시설이다(강운원 외, 2016).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시설 내의 유희시설은 운영 중인 학교 안의 유희교실과 운영을 하지 않는 폐교시설 총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육부 기준에 따른 유희교실은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로 정의한다(이지예, 2019).

윤준영(2019)은 다양한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는 학교의 장소를 ‘유희교실’로 정의하였고, 향후 사용 여부에 따라 일시적 유희교실(한시적으로는 빈 교실이지만 학생 수 증가 등 다른 요인의 발생에 따라 추후 사용 가능한 교실)과 영구적 유희교실(향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교실)로 구분하였다.

정이성(2016)은 유희교실이란,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시설 이외에 남는 교실 또는 학생 증가 및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위해 남겨둔 교실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 수가 증가하지 않아 향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일반교실로 정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남게 되는 일반교실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교실을 유희교실로 간주한다. 또한 현재 학교에서 이용되지 않는 교실은 「유희교실」, 「일시적 유희교실」, 「빈 교실」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II-5〉 유희교실의 구분

용어	내용
유희교실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여유가 된다고 보는 일반교실
일시적 유희교실	현재는 일반교실로서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이유에 의해 특정용도 목적으로 개조되지 않고,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교실
빈 교실	유희교실 중 장래 계획은 없고 당해 학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일반교실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자료를 재구성함

## 나. 유희교실 현황

교육부가 제출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전국 시·도교육청 유희교실 현황을 보면 2017. 7. 24. 기준 전국에 6,162개의 유희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북은 337개의 유희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시·도 교육청 유희교실 현황

시도	보유교실 수	사용교실 수	유희교실 수
서울	92,459	92,211	266
부산	43,132	43,006	127
대구	30,547	30,299	248
인천	30,112	30,087	25
광주	19,347	18,986	361
대전	18,493	18,407	86
울산	16,374	16,239	136
세종	5,884	5,373	540
경기	151,443	149,153	2,291
강원	18,547	18,435	115
충북	22,046	21,855	193
충남	29,157	28,907	262
전북	29,423	29,093	337
전남	32,176	31,806	393
경북	37,685	37,301	385
경남	43,842	43,446	397
제주	9,007	9,007	0
합계	629,674	623,611	6,162

출처: 베타뉴스(2017)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연구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 Ⅲ. 원도심학교 현황

1. 원도심학교 정의 및 현황
2. 원도심학교 학령인구 현황
3. 원도심학교 유휴교실 현황
4. 시사점





## Ⅲ. 원도심학교 현황

### 1

### 원도심학교 정의 및 현황

#### 가. 원도심학교 정의

「전라북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원도심”이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학생 수의 급감,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의 이전 등으로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을 말한다. 제2조 제3호에서 “원도심학교”란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전라북도교육감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라북도교육청 「2023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에 따르면 원도심학교의 여건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불리한 정주 여건: 원도심 지역 상권과 정주 세대 유출 및 신도심 개발과 상권 이동으로 지역 및 학교 공동화 가속

둘째, 원도심학교 학생 수 감소: 원도심 지역 학교의 경우 비선호 현상으로 인해 학급수가 감소하고 소규모화가 지속되고, 예산 및 교직원 인원 감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움

셋째, 마을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연계 가능 자원 풍부: 과거 중심지로서 도시 한 가운데 위치하여 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는 마을 교육공동체 구성 용이

넷째, 원도심 살리기를 위한 정책 공감대 확산: 원도심학교는 단순히 학생 교육 기능 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문화센터로서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

## 나. 원도심학교 현황

### 1) 지역별 원도심학교 현황

전라북도교육청은 전주·군산·익산 지역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기준 총 59교의 원도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표 III-1〉 원도심학교 현황

(기준: 2023학년도, 단위: 교)

구분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전주	19	10	29
군산	15	1	16
익산	12	2	14
합계	46	13	59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 2) 원도심학교 저소득층 비율 현황

〈표 III-2〉 원도심학교 저소득층 비율 현황

(기준: 2022.7.1., 단위: 교)

구분	저소득층 비율						계
	10%미만	10%~15%	15%~20%	20%~25%	25%~30%	30%이상	
초	10	9	15	3	5	4	46
중	-	3	2	6	1	1	13
합계	10	12	17	9	6	5	59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원도심학교는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인프라 및 복지시설이 취약하고 경제적 불리함으로 인해 정보 습득과 간접체험 기회 등의 제약이 있다.

## 2

## 원도심학교 학령인구 현황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라북도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96,706명에서 90,431명으로 6,275명( $\Delta 6.5\%$ ) 감소하였고,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전주시 18개 원도심 초등학교의 최근 5년간 학생 수는 2018년 3,822명에서 2022년 16.6% 감소한 3,185명으로 전주시 전체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0.9% 증가하는데 비해 매우 큰 감소세를 보인다(전주동신초등학교는 인근 아파트 2개 재건축으로 총 1,748세대가 유입되어 제외함).

군산시 15개 원도심 초등학교의 최근 5년간 학생 수는 2018년 3,075명에서 2022년 13.5% 감소한 2,660명으로 군산시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5.1% 감소에 비해 많은 감소세를 보인다.

익산시 12개 원도심 초등학교의 최근 5년간 학생 수는 2018년 3,147명에서 2022년 11.5% 감소한 2,784명으로 3개 원도심 지역 가운데 가장 적은 감소세를 보인다. 익산시 초등학교 학생 수 14.5% 감소에 비해 적은 감소세를 보이지만,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생 수 6.5% 감소에 비해서는 5.0%p 높은 감소를 보인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87,651명에서 64,980명으로 22,671명( $\Delta 25.9\%$ ) 감소하는 매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감소율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Delta 6.5\% \rightarrow \Delta 25.9\%$ ).

재건축,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요인이 없을 경우, 원도심학교 학생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I-3〉 전라북도 초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동 현황

(단위: 명, %)

순	지역	연도별 학생 수(4.1.기준)					증감	증감율
		2018	2019	2020	2021	2022		
1	전주	38,512	39,226	38,886	38,782	38,881	369	0.9
2	군산	15,338	15,440	15,082	14,841	14,596	△742	△5.1
3	익산	15,688	15,461	14,602	14,062	13,701	△1,987	△14.5
4	정읍	5,248	5,195	4,871	4,761	4,587	△661	△14.4
5	남원	4,014	3,870	3,696	3,512	3,377	△637	△18.9
6	김제	3,713	3,644	3,423	3,315	3,139	△574	△18.3
7	완주	5,052	4,981	4,718	4,496	4,371	△681	△15.6
8	진안	904	877	843	848	771	△133	△17.3
9	무주	1,037	1,018	935	913	861	△176	△20.4
10	장수	979	989	914	861	805	△174	△21.6
11	임실	1,001	1,004	952	874	787	△214	△27.2
12	순창	1,134	1,102	1,025	966	897	△237	△26.4
13	고창	2,130	2,123	2,018	2,001	1,900	△230	△12.1
14	부안	1,956	1,920	1,828	1,814	1,758	△198	△11.3
합계		96,706	96,850	93,793	92,046	90,431	△6,275	△6.5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2018~2022 교육행정자료를 재구성함

〈표 Ⅲ-4〉 전라북도 초등학교 향후 5년간 학생 수 전망

(단위: 명, %)

순	지역	연도별 학생 수					증감	증감율
		2023	2024	2025	2026	2027		
1	전주	38,057	36,291	33,710	31,418	28,945	△9,112	△23.9
2	군산	14,510	13,680	12,600	11,605	10,619	△3,891	△26.8
3	익산	13,003	12,138	11,117	10,260	9,345	△3,658	△28.1
4	정읍	4,296	3,925	3,618	3,406	3,042	△1,254	△29.2
5	남원	3,197	2,961	2,784	2,629	2,421	△776	△24.3
6	김제	2,962	2,707	2,475	2,257	2,039	△923	△31.2
7	완주	4,346	4,162	3,777	3,488	3,171	△1,175	△27.0
8	진안	694	647	592	565	548	△146	△21.0
9	무주	810	731	651	660	546	△264	△32.6
10	장수	740	653	582	512	466	△274	△37.0
11	임실	741	708	685	654	664	△77	△10.4
12	순창	822	756	711	685	657	△165	△20.1
13	고창	1,811	1,683	1,576	1,480	1,337	△474	△26.2
14	부안	1,662	1,556	1,404	1,302	1,180	△482	△29.0
합계		87,651	82,598	76,282	70,921	64,980	△22,671	△25.9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2023~2027학년도 중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자료를 재구성함

〈표 III-5〉 전주시 원도심 초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동 현황

(단위: 명, %)

순	학교명	연도별 학생 수(4.1.기준)					증감	증감율
		2018	2019	2020	2021	2022		
1	**초	302	293	287	260	240	△62	△20.5
2	**초	210	195	205	228	226	16	7.6
3	**초	457	434	408	381	349	△108	△23.6
4	**초	64	49	47	53	48	△16	△25.0
5	**초	345	338	315	294	267	△78	△22.6
6	**초	169	145	124	125	124	△45	△26.6
7	**초	224	248	240	244	244	20	8.9
8	**초	229	212	200	186	174	△55	△24.0
9	**초	283	330	357	365	514	231	81.6
10	**초	56	47	45	45	54	△2	△3.5
11	**초	87	87	78	79	77	△10	△11.5
12	**초	353	342	306	273	240	△113	△32.0
13	**초	45	61	74	89	100	55	122.2
14	**초	217	211	212	220	217	0	0
15	**초	175	147	125	109	101	△74	△42.3
16	**초	231	233	200	198	195	△36	△15.6
17	**초	91	83	77	73	69	△22	△24.2
18	**초	387	377	332	293	278	△109	△28.2
19	**초	180	208	200	192	182	2	1.1
전주 원도심 합계		4,105	4,040	3,832	3,707	3,699	△406	△9.9
전주동신초 제외		3,822	3,710	3,475	3,342	3,185	△637	△16.6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2018~2022 교육행정자료를 재구성함

〈표 Ⅲ-6〉 군산시 원도심 초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동 현황

(단위: 명, %)

순	학교명	연도별 학생 수(4.1.기준)					증감	증감율
		2018	2019	2020	2021	2022		
1	**초	352	351	325	350	348	△4	△1.1
2	**초	190	173	145	118	99	△91	△47.9
3	**초	137	138	136	130	109	△28	△20.4
4	**초	12	10	20	44	45	33	275.0
5	**초	225	245	235	233	209	△16	△7.1
6	**초	186	182	154	133	129	△57	△30.6
7	**초	599	589	541	528	484	△115	△19.2
8	**초	93	126	134	138	127	34	36.5
9	**초	147	162	199	209	219	72	49.0
10	**초	144	137	130	116	98	△46	△31.9
11	**초	62	56	53	52	69	7	11.3
12	**초	811	744	681	636	588	△223	△27.5
13	**초	24	30	25	26	28	4	16.7
14	**초	49	37	50	68	68	19	38.8
15	**초	44	42	37	43	40	△4	△9.1
군산 원도심 합계		3,075	3,022	2,865	2,824	2,660	△415	△13.5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2018~2022 교육행정자료를 재구성함

〈표 III-7〉 익산시 원도심 초등학교 최근 5년간 학생 수 변동 현황

(단위: 명, %)

순	학교명	연도별 학 생수(4.1.기준)					증감	증감율
		2018	2019	2020	2021	2022		
1	**초	339	338	307	294	294	△45	△13.3
2	**초	128	132	122	129	117	△11	△8.6
3	**초	760	753	718	707	665	△95	△12.5
4	**초	119	124	97	82	79	△40	△33.6
5	**초	33	33	37	51	53	20	60.6
6	**초	235	242	233	225	210	△25	△10.6
7	**초	212	195	164	143	135	△77	△36.3
8	**초	316	315	325	295	277	△39	△12.3
9	**초	177	178	150	142	147	△30	△16.9
10	**초	241	234	232	223	215	△26	△10.8
11	**초	560	571	537	522	533	△27	△4.8
12	**초	27	28	29	48	59	32	118.5
익산 원도심 합계		3,147	3,143	2,951	2,861	2,784	△363	△11.5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2018~2022 교육행정자료를 재구성함



## 3

## 원도심학교 유휴교실 현황

전라북도 초등학교는 총 422교, 전체 교실 9,282실이며 이중 유휴교실은 1,113실로 전체 교실의 12.0%를 차지한다. 유휴교실 비율은 무주군(18.5%)→군산시(16.6%)→익산시(14.5%)→전주시(1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원도심학교가 있는 전주·군산·익산 지역은 전체 교실 5,714실 중 유휴교실 806실로 전체 교실의 14.1%를 차지한다. 또한 전주·군산·익산 지역 원도심 초등학교의 전체 교실 1,208실 중 유휴교실은 240실로 전체 교실의 19.9%를 차지한다. 세 지역의 원도심 학교 유휴교실 비율은 전라북도와 전주·군산·익산 지역 유휴교실 비율에 비해 각각 7.9%p, 5.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유휴교실 비율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전체 교실 2,915실 중 유휴교실 373실로 전체 교실의 12.8%를 차지하고, 군산시는 전체 교실 1,286실 중 유휴교실 214실로 전체 교실의 16.6%를 차지하며, 익산시는 전체 교실 1,513실 중 유휴교실 219실로 전체 교실의 14.5%를 차지한다.

전주시 19개 원도심 초등학교는 전체 교실 510실 중 유휴교실 108실로 전체 교실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체 12.0%, 전주시 12.8% 대비 각각 9.2%p, 8.4%p 높은 비율이다.

군산시의 경우 15개 원도심 초등학교 전체 교실 320실 중 유휴교실 63실로 전체 교실의 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체 12.0%, 군산시 16.6% 대비 각각 7.7%p, 3.1%p 높은 비율이다.

익산시의 경우 12개 원도심 초등학교 전체 교실 378실 중 유휴교실 69실로 전체 교실의 1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전체 12.0%, 익산시 14.5% 대비 각각 6.3%p, 3.8%p 높은 비율이다.

〈표 III-8〉 전라북도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기준: 2023. 3. 2., 단위: 개, %)

순	지역	학교수	전체교실수(a)	유휴교실수(b)	비율(b/a)
1	전주	74	2,915	373	12.8
2	군산	56	1,286	214	16.6
3	익산	60	1,513	219	14.5
4	정읍	34	645	54	8.4
5	남원	27	459	40	8.7
6	김제	36	530	56	10.6
7	완주	30	526	39	7.4
8	진안	13	174	8	4.6
9	무주	10	130	24	18.5
10	장수	9	132	8	6.1
11	임실	15	182	14	7.7
12	순창	15	189	12	6.3
13	고창	21	317	36	11.4
14	부안	22	284	16	5.6
총계		422	9,282	1,113	12.0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내부 자료

〈표 Ⅲ-9〉 전주·군산·익산 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기준: 2023. 3. 2., 단위: 개, %)

지역	학교수	전체교실수(a)	유휴교실수(b)	비율(b/a)
전라북도	422	9,282	1,113	12.0
전주시	74	2,915	373	12.8
군산시	56	1,286	214	16.6
익산시	60	1,513	219	14.5
3시 합계	190	5,714	806	14.1
전주시 원도심	19	510	108	21.2
군산시 원도심	15	320	63	19.7
익산시 원도심	12	378	69	18.3
3시 원도심 합계	46	1,208	240	19.9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내부 자료

〈표 III-10〉 전주시 원도심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기준: 2023. 3. 2., 단위: 개, %)

지역	순	학교명	전체교실수(a)	유휴교실수(b)	비율(b/a)
전주시	1	**초	15	1	6.7
	2	**초	25	4	16.0
	3	**초	31	2	6.5
	4	**초	13	0	0.0
	5	**초	44	15	34.1
	6	**초	33	13	39.4
	7	**초	11	0	0.0
	8	**초	43	9	20.9
	9	**초	44	9	20.5
	10	**초	10	0	0.0
	11	**초	37	11	29.7
	12	**초	16	1	6.3
	13	**초	12	0	0.0
	14	**초	21	4	19.0
	15	**초	25	8	32.0
	16	**초	29	2	6.9
	17	**초	28	6	21.4
	18	**초	48	14	29.2
	19	**초	25	9	36.0
전주시 원도심학교 소계			510	108	21.2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내부 자료

〈표 Ⅲ-11〉 군산시 원도심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기준: 2023. 3. 2., 단위: 개, %)

지역	순	학교명	전체교실수(a)	유휴교실수(b)	비율(b/a)
군산시	1	**초	41	6	14.6
	2	**초	15	0	0.0
	3	**초	18	3	16.7
	4	**초	11	0	0.0
	5	**초	9	1	11.1
	6	**초	14	1	7.1
	7	**초	21	4	19.0
	8	**초	13	0	0.0
	9	**초	46	8	17.4
	10	**초	11	2	18.2
	11	**초	50	15	30.0
	12	**초	19	7	36.8
	13	**초	32	15	46.9
	14	**초	11	1	9.1
	15	**초	9	0	0.0
군산시 원도심학교 소계			320	63	19.7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내부 자료

〈표 III-12〉 익산시 원도심 초등학교 유휴교실 현황

(기준: 2023. 3. 2., 단위: 개, %)

지역	순	학교명	전체교실 수(a)	유휴교실 수(b)	비율(b/a)
익산시	1	**초	30	8	26.7
	2	**초	37	14	37.8
	3	**초	46	6	13.0
	4	**초	18	5	27.8
	5	**초	12	1	8.3
	6	**초	41	12	29.3
	7	**초	44	4	9.1
	8	**초	31	1	3.2
	9	**초	30	5	16.7
	10	**초	38	13	34.2
	11	**초	37	0	0.0
	12	**초	14	0	0.0
익산시 원도심학교 소계			378	69	18.3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 내부 자료

## 4

## 시사점

2023. 3. 2. 기준 원도심 초등학교의 유허교실은 전체 교실 대비 19.9%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원도심학교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4.1% 감소(10,044명→8,629명, △1,415명) 하였고, 향후 5년간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생 수는 급감(87,651명→64,980명, △22,671명, △25.9%)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원도심학교의 유허교실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학교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는 학교 유허시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우선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돕기 위한 여러 유형의 특별실 조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실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평생교육, 체육, 복지, 문화 프로그램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원도심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있고, 노후화된 건물에 특별실을 조성하여 공간 재배치를 하더라도 이용하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 복지, 문화, 편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증개축 또는 신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원도심 지역의 부족한 공공시설, 체육시설 등을 확충할 수 있다.

미래사회의 교육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할 것이다. 교수·학습의 방법이 변하고 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유허교실의 활용을 넘어 지역주민과의 공동 활용, 나아가 학교시설 복합화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의 개념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지금 무엇보다 평생교육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 후에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60세 이후에도 개인의 생산활동이 필요한 사회가 되었고, 이러한 생산활동은 개인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의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분야의 학습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가운데 학교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평생배움터의 장으로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개방을 넘어 평생교육을 위한 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을 복합화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연구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 IV.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학교시설 복합화-

1.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
2.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 및 효과
3.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적 기반
4.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5.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및 종류
6. 학교시설 복합화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IV.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 - 학교시설 복합화 -

#### 1

####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

복합화(複合化)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거듭 합쳐지거나 그것이 합쳐져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시설(기능)을 복합해 놓은 것이다.

건축에서 복합화의 개념은 교실, 운동장, 강당 이외의 다른 건축물 용도를 학교부지 내의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에서의 복합화는 일정한 범위의 구역 내에 여러 가지 용도가 혼합된 개발을 통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기능의 연계성을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한다(신진용, 2008).

현대사회에서 점차 협소해지는 도시의 대지와 증가하는 시설 요구의 추세로 많은 공공시설에서 다용도 복합공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소민, 2019).

박태정(2014)은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시설이 단순히 교육 장소라는 기능에서 벗어나 학교부지 내에 체육, 보육, 문화, 복지, 녹지 및 공공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공존하여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시설로서 물리적 환경을 학교에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김경희(2015)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부지 내 문화, 복지, 체육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함으로써 학생에게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생활의 편의와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신진용(2008)은 학교시설 복합화는 운동장 및 강당, 주차장, 기타 공간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고, 기타 지역주민시설을 건축적으로 복합화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로서 학습·복지·문

화·주민교류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2004)는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 안에 주민 편의 및 문화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와 복지 향상 및 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설로 정의하였고, 기획예산처(2007)는 학교와 문화·복지 등 주민 생활 기반 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화함으로써 기존의 교사·학생 중심의 폐쇄된 학교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센터라고 정의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2008)는 학교시설 복합화의 개념을 학교부지 내에 신축 또는 증축 시 지역주민의 문화, 체육, 복지, 생활 편의를 위한 시설을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민간투자법상 대상 시설인 일반 학교시설을 의미하는 교육시설 계열과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 계열, 공공 보건 의료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보육시설과 같은 복지시설 계열 및 도시공원과 같은 기타 시설 계열이 주요 대상이 되며, 학교의 지역 커뮤니티 센터화 및 평생교육시설화를 유도할 수 있는 모델이 우선 권장됨을 밝혔다. 이에 따른 복합화 대상 가능 시설의 종류는 <표Ⅳ-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Ⅳ-1> 학교시설 복합화의 도입 가능한 대상 시설

기능	대상 시설
교육 관련 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평생교육을 위한 각종 강의실 등
주민 편의 시설	은행, 병·의원, 동사무소, 약국, 은행 등
문화 및 복지 관련 시설	공연장, 도서관, 경로당, 전시장 등
체육 관련 시설	수영장, 체육관, 탁구장, 헬스클럽, 테니스장 등
커뮤니티 시설	다목적홀, 동아리 공간 등
기타 시설	주차장, 녹지 공간, 산책 및 조깅 공간 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5)의 자료를 재구성함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주차장법),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보건법),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 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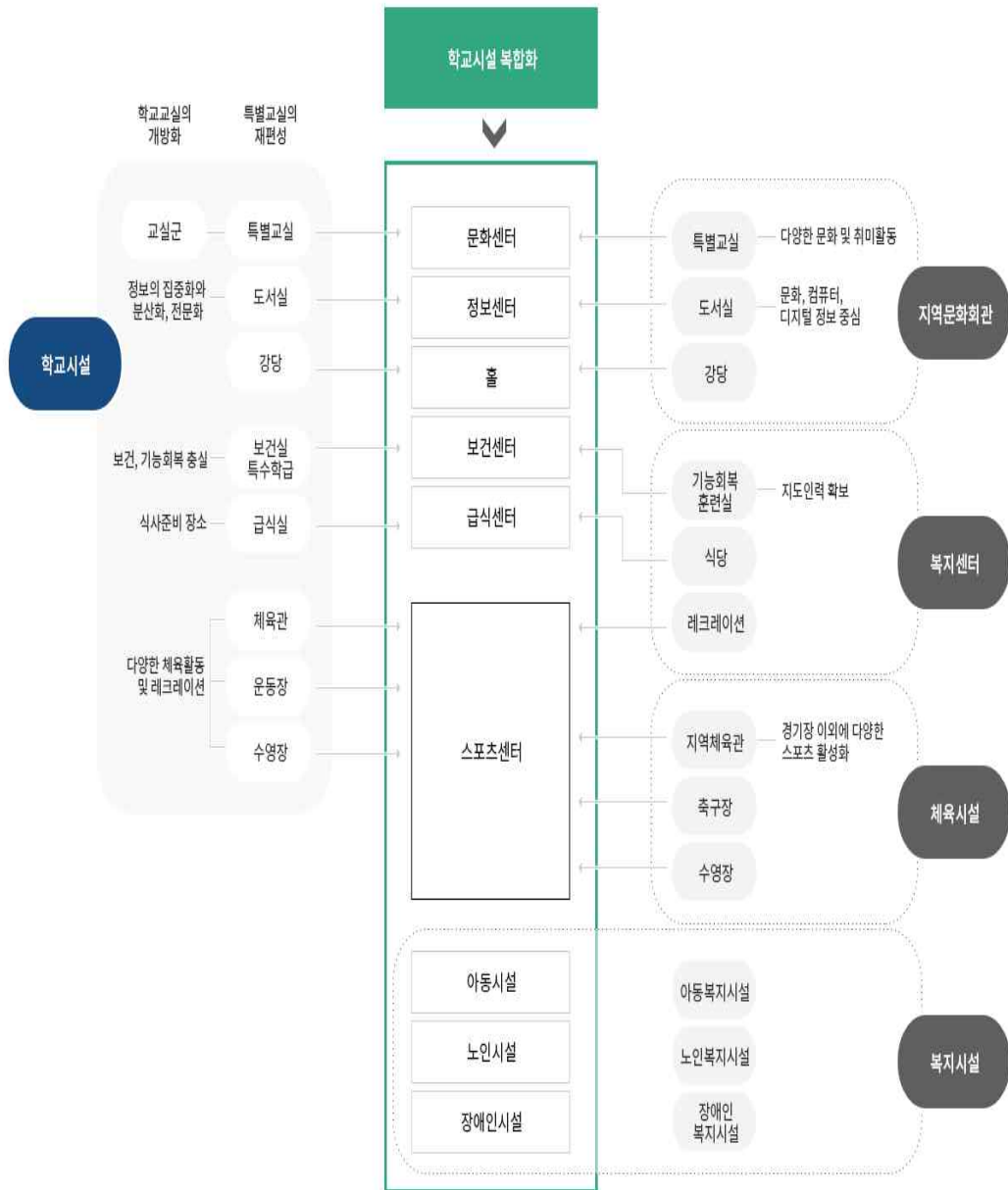
즉,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학교 부지에 복합화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학교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의미의 학교시설 개방을 넘어서 학교시설 복합화의 단계로 점차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IV-2〉 학교복합시설과 학교시설 개방 비교

구분	학교복합시설	학교시설 개방
개념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복합해 놓은 것, 즉 기존 학교시설에 추가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것	기존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가하는 것
이용 시간	복합화 시설에 맞게 이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평일: 학생 하교 후 저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종일 이용 가능
이용 대상	학생, 지역주민	학생, 지역주민
이용 시설	운동장, 강당, 교실 및 특별실, 주차장, 수영장, 도서관, 평생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운동장, 강당, 교실 및 특별실
관련 법 및 조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조례 없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도



[그림Ⅳ-1] 학교시설 복합화 개념도

출처: 교육부(2021a)

## 2

##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 및 효과

### 가.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

#### 1)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유휴시설의 활용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전라북도 초등학교 학생 수는 총 87,651명에서 64,980명으로 22,671명 감소( $\Delta 25.9\%$ )하는 매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최근 5년간 감소율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Delta 6.5\% \rightarrow \Delta 25.9\%$ ).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 지역사회의 해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체적인 역할의 선도가 필요하며(교육부, 2021b),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와 늘어나는 유휴공간의 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 2) 다양한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따른 학교시설 다양화 및 교육환경 개선

2009 개정 교육과정(2009~2015)에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교수·학습 형태는 교사 위주의 강의식 교육에서 학생 위주의 열린 교육, 자발적 참여에 의한 토론식 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의 획일성 및 단순화에서 창의성 및 다양화를 추구하며, 학교는 단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교육의 장과 정보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미래의 학교는 다양한 교육 방법의 실현이 가능한 학습공간 및 여러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시설들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소민, 2019).

또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필요하다. 수영장, 도서관, 각종 특별실(안전교육, 실험·실습, 스포츠) 등 학교에서는 재정적인 문제로 확보하지 못하는 각종 시설들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부터 유치함으로써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김창숙, 2020).

### 3)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저출생·고령화 및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학교는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육 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학교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체육, 복지, 문화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요구받게 된다. 향후 리모델링 또는 증·개축을 하게 될 경우 학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문화시설을 포괄하고 체육, 교육, 문화 등을 담당하게 되는 요구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이광민, 2021).

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매우 친근한 장소이고, 도시의 공개공지(open space)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과 문화, 체육시설 등 다양한 생활 지원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지역의 활기를 되찾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학교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하다(고인석, 2019).

### 4)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변화

지역사회 구성원의 필요 및 요구수준이 매우 다양하고 사회가 복잡해져 감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학교시설은 지역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황성혜, 2010). 그럼에도 현재 학교 유휴시설의 대부분이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으며, 배드민턴, 축구 등 일부 생활체육 차원에서의 제한적인 활용만 되고 있을 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정이성, 2016). 특히 원도심의 경우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의 부족과 공공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공공시설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인석, 2019).

### 5)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공간 구축

최근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단순히 정규수업으로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방과후·돌봄의 양적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2023년 3월부터 5개 시·도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을 지원해 늘봄학교 214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침·저녁 돌봄,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 일시 돌봄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토요방과후, 찾아가는 마을 방과후, 과학·문화·AI·SW 체험버스,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2023년 처음 선보이는 늘봄학교는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교육부, 2023a).

이렇듯 늘어나는 방과후·돌봄 수요에 대비해 학교는 유휴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원도심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교육·돌봄·놀이·휴식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더불어 학교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원도심학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거점형 방과후·돌봄 공간을 구축하여 해당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공간이 부족한 신도심 학교의 학생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나는 방과후·돌봄 수요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나. 학교시설 복합화 효과(교육부, 2021a)

### 1) 학생: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용이

수영장, 체육관, 정보센터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함으로써, 학생의 방과후학교, 체육문화 활동, 취미·적성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가 용이해진다.

### 2) 지역주민: 생활 편의 향상

자기 계발 시설(체력증진, 문화강좌), 평생학습 시설(도서관, 컴퓨터실), 보육시설 및 주차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의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된다.

### 3) 지역사회: 세대 간 교류 촉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생활체육의 거점 공간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어린이, 청소년, 어른의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또한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심 공동화,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 4) 교육청, 학교: 예산 절감 및 경쟁력 강화

수영장, 정보센터 등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외부 재원으로 확보하여 교육청은 예산을 절감하고, 학교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 5) 지방자치단체: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내 물적·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 부지에 평생교육·문화·복지·체육 등 지역주민의 생애주기(Life Cycle)별 생활 편의를 위한 One-Stop 주민 편의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부지 확보 및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청년 및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문화·복지·체육 분야의 전문적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제공한다.

### 6) 중앙정부: 국가 균형 발전 효과 및 한정된 국가자원 이용 극대화

저출생, 고령화 추세로 인해 발생하는 세대 간 유대감 단절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토지 및 시설 등 한정된 국가자원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표 IV-3〉 학교시설 복합화 효과

참여 주체별	효과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 향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용
지역주민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학교·교육청	·교육청은 예산 절감, 학교는 다양한 시설 확보로 경쟁력 강화 ·학교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학생 보호 기능
지방자치단체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 확충 ·지역 내 물적·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의 중심 부지 확보 및 부지 매입비 절감
국가	·국가 균형 발전 효과(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한정된 국가자원 이용 극대화

### 3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적 기반

#### 가.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법규

학교시설 복합화와 관련하여 2019년 이전까지는 단일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정부의 생활SOC(국민생활편익 증진시설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 3개년 계획(2020~2022) 발표와 함께 생활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를 활용하여 도서관·수영장·어린이집 등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1)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0. 3. 24. 제정되었고, 2021. 3. 25. 시행되었다. 같은 법률 시행령은 2021. 11. 23. 제정·시행 되었다.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정의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였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
  -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학교복합시설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학생과 지역주민 등 학교복합시설 이용자 간의 동선이 분리되는 등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 사용검사 등을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 및 준공검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 처리를 간소화시켜 주는 특별법이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사대지(校舍垔地)·체육장 및 실습지
  -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 등)** ① 제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의 승인을 받거나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1.>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4. 12., 2008. 10. 24., 2010. 6. 29.>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체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007. 5. 2. 개정·시행으로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제3조의2)가 마련되었다.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29.> [본조신설 2007. 5. 2.]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 4. 18. 시행령 개정(2008. 5. 19. 시행)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문화 및 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영 제9조)가 마련되었다.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

정 2021. 4. 20. > [전문개정 2008. 12. 26.]

**시행령 제9조(연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2019. 7. 2., 2020. 12. 22., 2022. 4. 20.>

1. 연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9호 생략)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2005. 3. 31. 개정(2005. 10. 1. 시행)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는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1., 2011. 6. 7., 2011. 9. 16., 2012. 2. 1., 2012. 12. 18., 2013. 1. 23., 2013. 7. 30., 2014. 1. 7., 2014. 1. 14., 2014. 1. 28., 2014. 6. 3., 2015. 8. 28., 2016. 1. 27., 2016. 3. 2., 2016. 3. 29., 2016. 5. 29., 2017. 1. 17., 2017. 3. 21., 2018. 3. 13., 2020. 3. 31.>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등기법」

건물 신축 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건물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와 구분소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건축물대장 편성, 구분소유권 보존등기가 가능하게 하였다.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로 등기된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2007. 12. 28. 개정·시행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8) 「평생교육법」

각급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표 IV-4〉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법률

법령	조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 등)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복합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부동산 등기법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9조(학교교육) 제10조(평생교육)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시행령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6조(영구시설물의 축조)

출처: 고인석(2019)의 자료를 재구성함

## 나.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조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6개 교육청(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북도) 및 4개 기초자치단체(창원시, 시흥시, 용인시, 화성시)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 중이다.

###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복합시설과 관련된 조례가 시행 중인 6개 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여(2020. 9. 24.) 시행 중에 있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과 협력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도서관의 열람대출 및 학생·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5.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교육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위탁)**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 또는 자치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2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교육·안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해당 학교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2) 「시흥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학교복합화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및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2.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
6.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학교복합화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교복합화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③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지원 등)**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경우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화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 구성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학교복합화시설의 사용

4

##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 및 문제점

### 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경과(사업 추진 주체별)<sup>1)</sup>

#### 1) 교육청(2000~현재)

서울금호초등학교 개축사업 시행 시 적용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금호교 육문화회관 개관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해 서로에게 필요한 시설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교육청은 재정 부족으로 확충하지 못했던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확충하지 못했던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등의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였다.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주로 서울에서, 그 외에 경기도,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2) 기획예산처(2006~2008)

2005년부터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의 기반 시설을 미리 확보하고, 소요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BTL)을 적용하면서 학교시설의 신축, 증·개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BTL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교에 생활SOC(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BTL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였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 규정」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각종 제도개선을 하는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10개 학교 수준에 그치는 등 실적이 미미하

1) 출처: 교육부(2021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유용상(2019), 한국교육개발원(2022)

였고, 2009년부터 학교시설 BTL 사업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고 기획예산처의 조직개편 등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 3) 생활SOC 추진단(2020~2022)

양적성장 중심 투자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속히 공급 가능하며 동시에 교육수요도 충족이 가능한 학교 부지·시설을 활용하여 기획-건설-운영 전 단계에 걸쳐 학교 협력모델을 표준화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복합화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2개 학교 35개 사업, 2021년에는 6개 학교 17개 사업이 추진되는 등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 4)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2021~2025)

2021년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 조성을 위해 공간 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의 4대 혁신을 꼽았다. 이중 학교공동체 혁신은 지역·학교 상황을 고려한 학교의 시설 복합화로,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학교시설 복합화로 주말, 일과 이후에도 학부모와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을 지원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2025년까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5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현재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 5) 늘봄학교 지원(초등) 및 지역소멸 대응(중등) (2023~2027)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학교복합

시설 설치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신설되는 학교복합시설에는 놀봄학교 프로그램 연계를 위한 멀티룸, 수영장, 체육관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하였다.

중·고, 대학교에는 심화하는 지방소멸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사업 범위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맞춤형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다. 신도시의 경우 학교 신설단계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및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구도심의 경우 도심 공동화에 의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 공간에 주민이 요구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도심 거점 역할을 주도하게 하며, 농산어촌의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인프라를 집약하여 마을 거점 기반 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을 주도하게 한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 추진에 따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자체·교육청 행·재정 지원 강화 방안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투입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일정을 단축한다. 사업기획, 관리·운영, 지자체-교육청 협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으로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여 학생 안전과 학습환경 침해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재원으로 건축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권을 시설 설치자(지자체 등)에게 부여하여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며, 기존 학교 신설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 외 별도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 해소를 위하여 인력을 지원한다.

둘째, 부처 협업 강화 방안이다. 교육부가 학교시설과 연계가능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등 관계 부처 협업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의 이러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40교씩 총 200교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며, 교당 90억 원을 지원하여 총 1조 8,0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2001년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서울금호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기준 전국에 총 226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었다. 21년간 226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향후 5년간 200개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에서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드러나 있다.

〈표 Ⅳ-5〉 학교복합시설 추진 현황

기간	추진 주체	주요 내용
2000년~ 현재	교육청	▶ 국내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금호교육문화회관 개관 이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시설을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2006년~ 2008년	기획 예산처	▶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의 기반시설을 미리 확보하고, 소요 비용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BTL)을 적용. 이러한 BTL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교에 생활SOC를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 시행
2020년~ 2022년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속히 공급 가능하며 동시에 교육수요도 충족이 가능한 학교 부지·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
2021년~ 2025년	교육부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 가운데 학교공동체 혁신(지역·학교 상황을 고려한 학교의 시설 복합화)을 통해,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도록 학교시설을 지역과 공유. 주말, 일과 이후에도 학부모와 함께 학교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가능하고, 지역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제공하여 평생교육 및 자기계발을 지원
2023년~ 2027년	교육부	▶ 국가책임 교육·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229개)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 심화하는 지방소멸 현상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설치 지원 · 신도시: 학교 신설단계에서부터 지역 커뮤니티 시설과 연계한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재정 효율화 도모 · 구도심: 도심공동화에 의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이 요구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여 도심 거점 역할 주도 · 농산어촌: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인프라를 집약하여 학교를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주도

## 나.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sup>2)</sup>

2022년 10월 기준 전국에 총 226개 학교복합시설이 있다.

첫째,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226개의 학교복합시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6개의 시설이 서울에 있고, 경기, 부산 순이다.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 8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학교복합시설 사업이 대도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V-6〉 지역별 학교복합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계	106 (46.9)	62 (27.5)	19 (8.4)	7 (3.1)	6 (2.7)	4 (1.8)	3 (1.3)	3 (1.3)	3 (1.3)
구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충북	전북	제주	합계
계	2 (0.9)	2 (0.9)	2 (0.9)	2 (0.9)	2 (0.9)	1 (0.4)	1 (0.4)	1 (0.4)	226 (100)

둘째, 학교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36교(60.2%), 중학교 61교(27.0%), 고등학교 26교(11.5%), 통합학교 3교(1.3%)이다. 절반이 넘는 학교복합시설이 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IV-7〉 학교급별 학교복합시설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초	63	14	2	2	1	1	2	1	35
중	29	5	0	1	1	1	0	1	18
고	14	0	1	0	0	1	1	0	7
통합	0	0	0	1	0	0	0	0	2

2) 출처: 학교시설 복합화 누리집, 한국교육개발원(2022)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초	2	0	2	0	2	4	4	1	136 (60.2)
중	0	1	0	0	0	2	2	0	61 (27.0)
고	0	0	0	1	0	0	1	0	26 (11.5)
통합	0	0	0	0	0	0	0	0	3 (1.3)

셋째, 학교복합시설의 시설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390개의 학교복합시설 중 생활체육 시설이 129개로 33.1%를 차지하고, 주차장 시설이 124개로 31.8%를 차지했다. 생활체육 시설 가운데 수영장은 35개로 27.1%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IV-8〉 지역별 학교복합시설 시설 구성 현황

〈단위: 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생활체육	84	4	2	3	2	2	2	2	19
평생문화	44	3	0	4	2	3	2	1	18
교육복지	14	1	0	3	2	1	1	0	10
주차장	48	17	1	3	1	2	2	1	41
기타	7	0	0	1	0	0	0	0	4
합계	197	25	3	14	7	8	7	4	92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생활체육	0	1	1	1	2	1	3	0	129 (33.1)
평생문화	0	1	1	0	0	0	5	1	85 (21.8)
교육복지	2	1	1	0	0	0	1	0	37 (9.5)
주차장	2	1	0	0	1	0	4	0	124 (31.8)
기타	1	1	0	0	1	0	0	0	15 (3.8)
합계	5	5	3	1	4	1	13	1	390

넷째, 학교복합시설의 건물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167개(73.9%), 지자체 37개(16.4%) 순으로, 교육청 소유가 3분의 2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V-9〉 지역별 학교복합시설 건물 소유 현황

〈단위: 개(%)〉

구분	교육청	지자체	공동소유 (교육청+ 지자체)	학교법인	미정	파악 안됨	합계
계	167 (73.9)	37 (16.4)	3 (1.3)	5 (2.2)	9 (4.0)	5 (2.2)	226 (100)

## 다. 문제점

### 1) 학생 안전 및 교육활동 침해 우려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가장 큰 우려는 불특정 다수가 학교에 출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및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는 점이다. 또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복합화는 자칫 학생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놀이, 휴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2) 획일화된 학교복합시설의 구성

2022년 10월 기준 총 390개의 학교복합시설 중 생활체육 시설과 주차장 시설을 합한 비율은 총 64.9%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차장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이며, 자칫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 3)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문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화하는 것이다. 학생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

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청과 지자체 내에서도 많은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일원화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소통 창구가 부재하여, 부서 간 협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4) 운영상의 문제점

소유와 관리, 운영의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어 복합시설의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시설의 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학교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복합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는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다(오병욱 외, 2008).

#### 5) 학교복합시설의 수도권 편중

226개의 학교복합시설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6개의 시설이 서울에 있고, 경기, 부산 순이다. 전체 학교복합시설 중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만 82.8%가 몰려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사회의 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고민해볼 문제이다.

#### 6) 시설의 물리적 한계

신축학교의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학교복합시설을 고려하여 진행하므로 큰 문제가 없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에는 이미 조성되어 있는 설비와 공간의 규모를 바탕으로 설계를 해야 하므로, 신축학교에 비해 공간계획에 대한 제약이 있다(이상학, 2021).

## 5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및 종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의하면 학교에 설치하는 복합화 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건강생활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있다.

학교복합화 시설 선정 시 전제조건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교육적 측면으로 학교 복합화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측면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셋째, 경제적 측면으로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있어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9).

학교 복합화 대상 시설은 주로 이용하는 대상 및 시설 종류에 따라 [표 IV-10]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IV-10〉 복합화 시설의 유형 및 종류

시설 유형	이용 대상	시설 종류
교육시설	학생 + 지역주민	유치원, 초·중고 학교시설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국민체육시설 등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녹지시설		공원 등
보육시설	지역주민	영·유아 보육원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등

※ 교육시설 이용 대상 연령: 3세~, 보육시설 이용 대상 연령: 0~5세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9)의 자료를 재구성함

[표 IV-10]의 시설 유형을 구체화하고 이용 대상을 학생, 지역주민, 타 지역 시민으로 확대하여 이용 대상별로 사용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구체화한 시설 유형에 대한 이용 대상 및 이용 대상 간의 상호 보완성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표 IV-11]과 같이 재분류할 수 있다. 재분류는 교육과 연관성의 유·무 및 상호 보완성을 중심으로 학교의 주 사

용자인 학생의 교육과 연관되어 상호보완이 가능한 시설인지 살펴보는 지표로 사용되었다. 재분류한 결과 체육시설의 경우 기존 학교의 기본시설로서 복합시설로서의 의미보다 이용 대상 확장의 의미가 컸고, 문화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이 학교와 지역과의 상호 보완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종찬 외, 2018).

〈표 IV-11〉 복합화 시설의 유형 및 종류의 재분류

시설유형		이용대상			교육	상호 보완성
		학생	지역 주민	타 지역 시민		
체육 시설	생활 체육시설	○	○	○	○	· 학교의 기본 시설로서 이용대상의 확장
	국민 체육시설	○	○	○	○	
문화 시설	도서관	○	△	△	○	· 수업 외 시간의 자가 학습 가능성 · 학생 외 주민 및 시민의 문화생활 활성화 (학생 외 주민 및 타 지역시민에게 개발될 경우)
	박물관	○	○	○	○	· 학교 교육과정과 시설 운영방향의 목표점과의 유사점으로 생기는 상호보완
	미술관	○	○	○	○	·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활성화 및 타 지역시민 유입으로의 지역 활성화 가능성
	공연장	○	△	△	○	· 학교 미래 교육과정에 포함될 '연극' 과목으로 공간의 필요성이 교육으로 확대
녹지 시설	공원	○	○	○	×	· 부지 활용에 치중된 복합화로 상호보완 미비
보육 시설	영, 유아 보육원	△	○	×	×	· 동생 등 가족의 이용으로 간접적 이용대상이 될 수 있지만 복합화의 의미가 부지 활용에 치중
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관	×	○	×	×	· 이용대상이 지역주민으로 국한되어 부지활용에 치중
	노인 복지시설	×	○	×	×	
공공 시설	주민 자치센터	×	○	×	×	· 학교와의 연관성 저하로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생의 피해 우려
	주차장	×	○	×	×	

\* 교육시설의 경우 학교시설과 같은 의미로서, 의미만의 확장으로 해석하여 재분류 유형에서 제외

\* 표에서 사용된 기호(○: 해당, △: 때에 따라 다름, ×: 희박)

출처: 이종찬 외(2018)의 자료를 재구성함

이종찬 외(2018)는 [표 IV-11] 녹지시설을 학생, 지역주민, 타지역시민 모두 이용은 하지만 교육과의 연관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았으나, 최근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지구 살리기 실천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학생의 참여와 실천 중심의 환경생태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 조성되는 녹지시설은 지역주민, 타지역시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 복지시설의 경우 이용 대상이 국한되어 부지 활용에 치중되고, 학교와의 연관성 저하로 학교의 주인인 학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보았으나, 국외 학교시설 복합화의 사례에서는 보육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복합화가 자주 등장하며 이러한 시설의 복합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확인되었다.

## 6

## 학교시설 복합화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 가. 국외 사례: 영국

학교시설 복합화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첫 번째는 1920~1930년대 캠브리지주 빌리지 칼리지(Village College in Cambridgeshire, 몇 개 마을 연합의 교육·레크리에이션)의 흐름으로, 교육서비스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Community)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학교 교육과 커뮤니티 교육을 통합하여 중학교는 낮에 교육을 하고, 커뮤니티 교육은 중학교 시설을 이용해 야간에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도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이경남, 2007).

두 번째 흐름은 학교의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1940년대부터 영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윤리교육의 일환으로 체육 과목을 채택하였고, 1965년에는 정부가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스포츠를 진흥하고 스포츠시설의 정비를 촉진하였다. 1972년에는 스포츠 10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1975년에는 가족



스포츠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전국의 공립학교와 주정부, 지방정부는 일정 규모의 체육시설을 갖추도록 각종 법을 통해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속에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레저 활동이 전 국민의 생활화가 되었고, 이를 수용하는 시설 수요가 학교시설과 복합화되면서 학교가 지역문화의 중심센터로 발전하게 되었다(최병관,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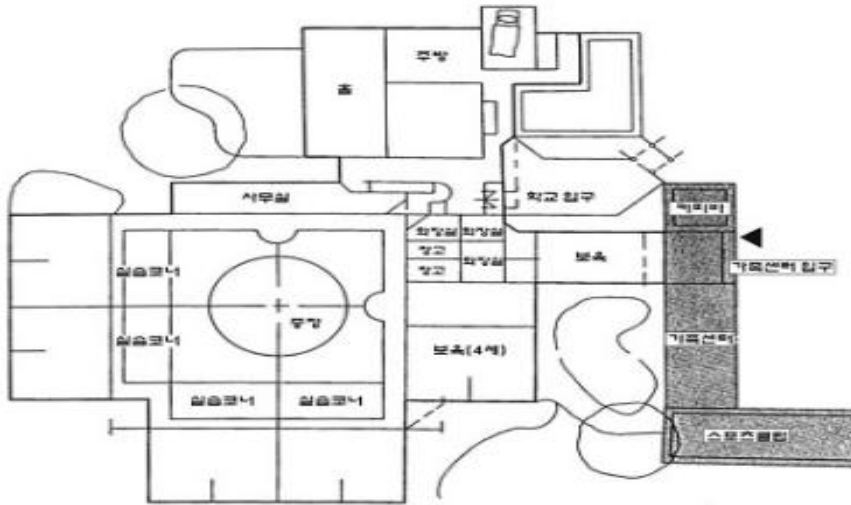
1971년 영국에서는 평생교육법의 재구성을 언급한 러셀보고서가 나왔고, 1976년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커뮤니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활용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영국의 학교는 평생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시작되었다(최병관, 2006).

영국의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은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서 「학교시설+커뮤니티룸」, 「학교시설+스포츠센터 또는 레저센터」, 「커뮤니티스쿨」, 「대규모 복합시설」, 「별동형 복합시설」 등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이경남, 2007).

#### 1) 「학교시설+커뮤니티룸」: 블랙버드 레이즈 커뮤니티 스쿨(Blackbird Leys Pre School)

학교시설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용하게끔 학교에 커뮤니티의 거점을 설치하여 학교시설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커뮤니티의 명칭은 다양하지만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다(김경은, 2020).

블랙버드 레이즈 커뮤니티 스쿨(Blackbird Leys Pre School)은 옥스퍼드주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시설의 바닥면적은 1,820㎡이고, 커뮤니티 시설은 400㎡이다. 주간에는 학교가 이용하고, 야간은 커뮤니티가 학교시설을 포함해서 이용한다(최병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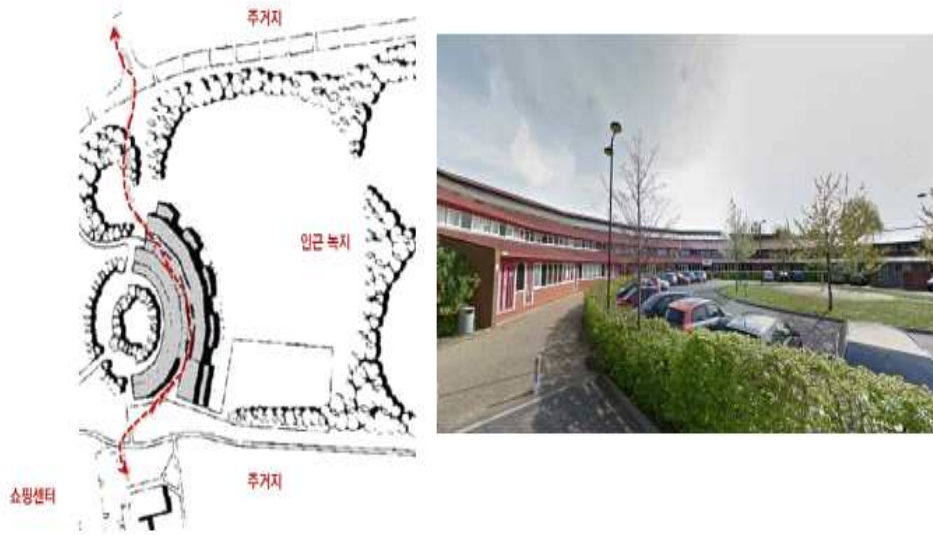
[그림Ⅳ-2] 블랙버드 레이즈 커뮤니티 스쿨 학교 평면도

출처: 최병관(2005)

## 2) 「학교시설+스포츠센터 또는 레저센터」: 크레스트우드 중학교 (Crestwood School, Communiy Center)

이 유형은 여러 종류의 사례들이 있으며, 학교와 일체형으로 스포츠센터와 데이케어 센터, 학교와 분리형으로 스포츠 홀과 레저센터, 대규모 커뮤니티센터, 여러 학교가 사용하는 스포츠센터 등의 복합시설이 있다(이경남, 2007).

영국 뉴 햄프주에 위치한 크레스트우드 중학교(Crestwood School, Communiy Center)는 1982년에 개교하였다. 29학급, 최대 7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중학교와 커뮤니티 센터가 복합된 사례이다. 부지 62,000㎡, 연면적 4,250㎡, 지상 2층 규모이고, 복합시설로는 교류 홀, 식당, 카페, 평생교육시설 등이 있다. 학교는 주택가와 쇼핑센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의 중앙 물을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의 교류를 촉진하도록 계획하였다(최병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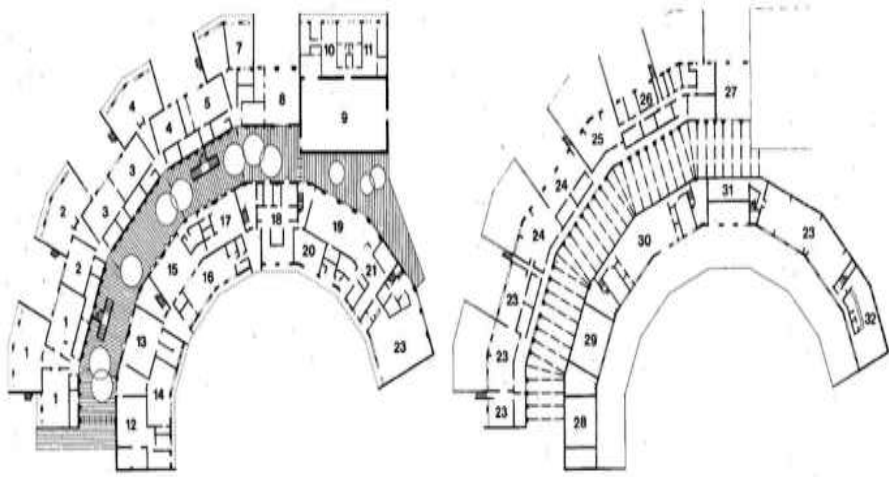
[그림 IV-3] 크레스트우드 중학교 배치도와 전경

출처: 이소민(2019)

지역주민들의 활동 거점이자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센터는 쇼핑센터와 가까운 1층과 2층의 남쪽 끝에 교사와 일체로 설치하였으며, 교사동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최병관, 2005).

1층 북쪽에는 체육관, 강당을 배치하였고, 1층 남쪽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미술, 공예, 목공 등 실습교과와 관련된 교실들을 배치하였다. 2층에는 강의실, 도서관, 주민집회를 위한 실 등을 배치하였다(이소민, 2019).

2층에 위치한 커뮤니티 바에서는 커피와 음료를 마실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해진 시간에는 술을 마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영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형태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한다(이경남, 2007).



[그림 IV-4] 크레스트우드 중학교 1층, 2층 평면도

출처: 이소민(2019)

학교의 중심에 물이 있고 다른 실들은 물의 남쪽과 북쪽으로 배치하였으며, 중앙물의 천정고를 높게 하여 자연채광이 되도록 계획함으로써 2층까지 실들이 모두 보인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 공간들은 중앙물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이 공간은 학생들의 주 동선이자 학습공간으로 이용된다. 또한 이 공간이 상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광장이자 통행로로 개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생, 교사, 지역주민들이 모두 이 공유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상호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공간이며, 결혼식, 맥주 페스티벌, 발표회와 같은 지역의 다양한 활동에 이용되기도 한다(이소민, 2019).

이 공유 공간은 학생과 주민들의 동선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교복합시설의 사례들과는 다르다. 그러나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교류하는 이러한 교류 공간은 반드시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크레스트우드 중학교의 공유공간은 천정고가 매우 높고 모든 실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실에서도 중앙물을 확인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어떤 장소에서도 이동하는 학생들, 지역주민들의 동선이 활성화되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학교시설들은 대부분 교문, 담장 등으로 학생들의 동선이 정해져 있고, 학교 내에 어두운 곳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와는 다른 점이다.



[그림 IV-5] 크레스트우드 중학교 중앙몰의 모습들

출처: 김경은(2020)

### 3) 「커뮤니티스쿨」: 포트힐 커뮤니티 학교(Fort Hill Community School)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은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전제로 학교를 건설하고 학교와 지역이 학교를 공유하는 형태이다(이경남, 2007).

### 4) 「대규모 복합시설」: 써튼 센터(Sutton Center)

「대규모 복합시설」 유형은 학교와 10개 이상 지역시설들의 공동 이용을 전제로 복합화하는 형태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몇 개의 시설을 부수적으로 복합화하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학교를 포함한 지역에 필요한 각종 시설들을 복합화하는 형태로 학교도 이러한 복합시설 중 하나로 구성되는 방식이다. 이러한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복합시설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갖는다는 점이다(이경남, 2007).

써튼센터는 노팅햄주 아쉬필드지구의 써튼 인 아쉬필드(Sutton-in-Ashfield)마을에 위치해 있고, 1973년부터 1979년까지 6년에 걸쳐 건설되었다. 부지 21,812㎡, 연면적 17,840㎡의 대규모 복합시설로, 학교(11세~18세), 청소년센터, 레크리에이션센터, 데이 센터(노인, 장애인), 사무국(복지서비스, 직업교육, 노팅햄대학), 출장소, 성인교육센터 등이 있다. 시설로는 교실 및 특별교실, 체육관, 아이스링크, 극장, 탁아소, 식당, 스쿼시코트, 바 등이 있고, 유아층부터 고령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많은 시설들

을 복합화했다(최병관, 2005).

이 시설은 관리 운영 조직이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센터장,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다른 분야를 통합하는 각종 위원회 등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이다. 시설의 이용은 오전 8시~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스쿼시코트, 댄스홀 등 다른 커뮤니티가 이용하는 부분이 구별되어 있으며, 학교와 커뮤니티 둘 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예약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저녁 11시까지 운영한다(최병관, 2005).

#### 5) 「별동형 복합시설」: 밀톤캠퍼스 학교(Milton Campus School)

「대규모 복합시설」의 유형이 학교를 포함한 각종 시설들을 일체화시킨 복합화 형태라고 한다면, 「별동형 복합시설」의 유형은 의도적으로 소규모 건물군으로 분리하여 구성한 유형이다(이현재, 2007).

학교도 여러 개의 건물들로 분리하여 형성되었고, 우리나라 학교의 연결복도와 같이 건물과 건물은 복도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관리·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대규모 복합시설」의 유형과는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개별적으로 폐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최병관, 2005).

### 나. 국외 사례(영국) 시사점

학교시설 복합화의 시작인 영국의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주정부, 지방정부, 학교와 지역주민의 대표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해 왔고, 참여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다양한 복합시설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예산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복합시설이 건립된 이후의 관리·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경우에 따라서 관리·운영의 주체가 나뉘어 학교와 복합시설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셋째, 학교복합시설 내 공유공간을 중심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또한 이 공간이 통행로로 이용되면서 학생과 지역주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의 활발한 이동과 밝고 넓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은, 교문과 담장 등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어두운 공간을 대신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부 시설들을 기존 학교시설에 추가로 설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고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처럼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대규모 복합시설을 추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신도심 지역에서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 다. 국외 사례: 일본

근대교육이 도입된 초기 일본의 학교 건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표준설계에 의해 획일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일본의 학교시설은 변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60~70년대 유네스코의 평생교육법 도입과 오픈스쿨의 개념 등장, 평생교육 사회 구축을 위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의 역할 분담 및 교육체제의 재편성이 시작되었다(이현재, 2007). 또한 이 시기 일본의 문부성은 「교육 방법 등의 다양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학교시설의 문화적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다양한 학습 공간을 보유한 평생교육 시설로서 학교를 활용하고자 하였다(오해진, 2007). 그리고 1990년 이후 「문교시설의 인텔리젠트화(1990년 문부성 보고서)」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시설 복합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이성룡 외, 2011), 평생학습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고령사회로 인한 복지시설 증대, 사회체육시설 확충의 필요성이라는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구체화시키고 있다(오병욱 외, 2008).

1980년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의 의미는 학교 부지 또는 건물 내에 학교시설과 스포츠시설, 평생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기능적으로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

게 하고,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공존·융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이경남, 2007). 또한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 및 학교시설 정비, 학교를 거점으로 한 커뮤니티 강화 및 세대 간 교류 활성화, 다양한 학습 기회의 창출 및 도시재생을 학교시설 복합화의 목적으로 한다(고인석, 2019).

일본의 학교시설 복합화는 ‘교육시설과 복합’, ‘복지시설과 복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시설과 복합’ 유형은 학교교육시설, 사회교육시설, 사회체육시설과 복합하는 방식이고, ‘복지시설과 복합’ 유형은 아동복지 시설, 양로원, 고령자 학습시설 등의 복지시설과 복합하는 방식이다(류호섭, 1999).

〈표 IV-12〉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

구분	복합화 유형	복합시설 종류
교육시설과 복합	학교교육 시설과 복합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교육 시설과 복합	도서관, 생애학습센터
	사회체육 시설과 복합	체육관, 수영장, 무도관
복지시설과 복합	아동복지 시설과 복합	아동관, 보육소
	고령자복지 시설과 복합	데이케어센터, 재택간호지원센터
	기타복지 시설과 복합	장애인복지시설, 문화홀, 집회장
기타시설과 복합	행정기관 및 기타	지역활성화센터, 출장소

출처: 이성룡 외(2011), 류호섭(1999)의 자료를 재구성함

1990년 이후 일본이 학교시설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것 중의 하나는 학교시설 개방과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이다. 1996년 8월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의 추진상황을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367개교를 복합화하였고, 복합화 시설은 고령자시설, 수영장,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홀, 공민관 등이다(류호섭, 2002).

2003년 기준 조사 대상 학교 613교(689시설) 가운데 초등학교 536교(594시설), 중학교 77교(95시설)로 초등학교가 87.4%로 초등학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합화 시설로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보육시설, 탁아소 등)이 295개(4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사회교육시설(공민관·집회소, 도서관)이 131개(19.0%), 기타시설로 방재용 비축창고 89개(12.9%), 노인복지시설(데이서비스센터, 특별양호노인홀 등) 59개(8.6%), 사회체육시설(체육관) 56개(8.1%)순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이 매우 높고, 그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복지시설 295개 중 291개가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노인복지시설 59개 중 53개가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사회교육시설과 사회체육시설은 중학교 전체 95개 시설 중 51개를 차지하고 있어 초등학교 보다는 중학교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시설 복합화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학교가 위치한 생활권이 다르고 학교별 교육프로그램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최병관, 2013).

2014년 기준 일본 전체 30,265개 초·중학교 가운데 복합화 시설이 있는 공립초·중학교 수는 10,567교로 전체 학교의 34.9%를 차지하고, 복합화 시설의 수는 13,394개이다. 복합시설은 초등학교 11,553개(86.3%), 중학교 1,841개(13.7%)의 분포를 보인다. 복합화 시설은 아동복지시설(방과후 아동클럽, 어린이집 등)이 6,806개(50.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방재용 비축창고 5,553개(41.5%), 사회교육시설(도서관, 공민관, 문화시설 등) 510개(3.8%)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의 복합화 시설 현황과 마찬가지로 복합화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복합화 시설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인석, 2019).

〈표 IV-13〉 일본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2014년 기준)

구분		시설 종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교육시설	사회교육시설	도서관	38	7	45
		공민관, 커뮤니티시설 등	383	60	443
		문화시설, 박물관 등	17	5	22
	생활체육시설	수영장	18	14	32
		체육관, 무도관 등	42	68	110

구분		시설 종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사 회 복 지 시설	아동복지시설	방과후 아동클럽	6,294	39	6,333
		어린이집	97	15	112
		아동발달지원센터, 아동관 등	354	7	361
	노인복지시설	양로원, 데이케어센터 등	98	15	113
	기타복지시설	장애인지원시설 등	21	4	25
기타	행정기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	35	19	54
	기타	급식공동조리장	99	54	153
		지역방재용 비축창고	4,036	1,517	5,553
		민간시설, 기타	21	17	38
합계			11,553	1,841	13,394

출처: 고인석(2019)의 자료를 재구성함

### 1) 시키(志木) 초등학교

일본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시키초등학교는 개교 100년이 넘어 시설이 매우 낙후된 학교였다. 이러한 학교와 내진 문제 등으로 개축이 필요했던 지역 내 공공시설(도서관, 공민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공공시설 관계자, 지역주민의 협의를 거쳐 학교와 공공시설의 복합화가 추진되었다. 평생교육과 지역커뮤니티의 중심으로 학교를 활용하고, 복합화된 시설을 주민이 함께 이용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이상학, 2021).

학교복합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검토위원회(행정관계자, 각 시설담당자, 학식 경험자, 시민 등 17명), 교육위원회,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프로젝트를 만들어 2년간 토론한 내용을 반영하며 설계하였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열린 지역학교 복합시설을 표방하였다(최병관, 2013).

〈표 IV-14〉 시키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일본 사이타마현 시카시(埼玉県志木市)
면적 및 규모	부지면적: 11,264㎡, 연면적: 13,346㎡, 지하2층, 지상4층, SRC구조
학교 규모	22학급, 677명(특별 지원 학급 2학급 7명)
복합 시설	초등학교, 공민관(이로하평생학습관), 공립도서관(이로하평생학습도서관)
사업 기간	1998년~2003년(기획부터 준공까지)
사업 목적	·노후화된 교사·공민관·도서관 개축 필요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시민 요구 증대 ·아이들을 지역전체에서 육성하는 '커뮤니티스쿨' 조성

출처: 고인석(2019), 최병관(2013)의 자료를 재구성함

시키초등학교는 북측동의 평생학습동(이로하평생학습도서관·평생학습관)과 남측동의 교실동 및 지하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동과 지역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종합안내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출입증이 있어야 한다. 지상 3층에 있는 이동통로를 제외하고는 학생과 주민의 동선을 엄격하게 분리되어있다(최병관, 2013).



[그림 IV-6] 시키초등학교 단면도와 배치도

출처: 고인석(2019)

시키초등학교의 학생 안전 방법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학교와는 다르다. 담장과 교문이 아닌 학교를 더 개방하고 학교 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이 등갓길에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적인 행사와 외부인 방문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관하는 교육 행사를 지향하는데, 이는 정기적인 방문을 하는 지역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설동 내부의 각 교실, 도서관 등의 외벽은 유리커튼월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와 지역주민의 시선이 실내에 닿을 수 있고, 반대로 평생교육동과 교사동에서는 커뮤니티 가로로도 시선이 닿을 수 있어 상호 시선 교차로 인해 학교시설 전체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CCTV 설치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원봉사자들이 학교 주변을 순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의 안전강화에 힘쓰고 있다(이소민 2019).



[그림 IV-7] 시키초등학교 교사동 내부와 커뮤니티 가로

출처: 이소민(2019)

## 2) 이치가와시(市川市) 제7중학교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는 도쿄에서 전철로 25분 거리의 수도권에 위치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 내에서 미취학 아동 및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치바현에 위치해 있다(최병관, 2013).

“가까운 지역 속에 아이부터 노인까지 함께 생활하는, 세대 간 서로 융합하고, 돕고, 발전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사회의 실현!”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노후화된 학교의 개축과 함께 노인복지시설, 미취학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하였으며, 고령화,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다세대가 생활하고 교류하는 거점으로서 상호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시도되었다(이경남, 2007).

〈표 IV-15〉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화 시설 개요

구분	내용
위치	치바현 이치가와시시(千葉県市川市)
학교규모	21학급 820명
사업기간	1999년~2004년(기획부터 준공까지)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5층, RC구조
복합시설	중학교(7,486㎡), 보육원(611㎡), 노인 데이서비스센터(393㎡) 문화홀(3,077㎡), 케어하우스(2,468㎡)
재정방식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민간투자사업

출처: 고인석(2019)의 자료를 재구성함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의 복합시설은 학교(중학생)와 보육시설(어린이), 케어센터(노인), 문화센터(젊은 세대) 등이 입지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에 대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설계를 통해 조성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고, 복합시설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시설물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을 종래 재정사업에 비해 약 9%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이성룡 외, 2011).

또한 운영·관리 부분에서의 분쟁 해소를 위해 학교, 교육위원회, 민간사업자(SPC) 등으로 구성된 ‘이치가와 제7중학교 교류시설 연합회의’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은 용적률이 낮는데,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는 이러한 여유 용적을 활용하여 복합시설들을 입체적으로 건설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부담을 절감하였고, 증

축된 복합화 시설은 많은 면적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합화동을 별도로 분리하여 진입 동선을 나누는 학교들과는 달리 집적화된 단일 동 복합건물 형태이다. 도심의 한정된 부지 내에서 용적률을 높여 단일 동으로 복합시설을 추진한 것이다. 단일 동이지만 명확한 시설 분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영역을 확실히 보장한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전용구역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개방구역을 구분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해 출입을 분리하여 각 시설을 이용하는 동선을 유도한다(이소민, 2019).



[그림 IV-8]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화 시설 구성도

출처: 이성룡 외(2011)

이 복합시설은 유아로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는 시설이 구분되어 있지만 보육시설의 아동과 양로원의 고령자, 중학교 학생들의 세대 간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자와 아동은 주 1회 합동 체조를 하고, 옥상 정원에서 채소나 꽃씨를 함께 심는 교류 활동을 한다. 양로원 이용자들은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피난 훈련을 할 때에는 중학생들이 고령자들을 도와주기도 하며, 직업 훈련 교육 활동 시간에는 관심 있는 중학생들이 보육원에서 보육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연령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 간의 교류 활동으로 중학생과 보육원 아동에게 미치는 교육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류호섭, 2017).



[그림 IV-9]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화 시설 모습

출처: 이성룡 외(2011)

### 3) 초와(調和) 초등학교

도쿄 초후시(調布市)에 위치한 초와 초등학교는 학교시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한 대표적인 일본 내 학교복합시설 사례로 손꼽힌다. 저출생 현상에 따라 감소하는 학생 수의 정상화를 꾀하고, 지역 내 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위해 오오마치 초등학교와 노가와 초등학교를 통합하여 신설하였다(이상학, 2021).

초와 초등학교는 학교 교육을 ‘가르치는 곳’에서 ‘스스로 배우는 곳’으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라운지, 오픈스페이스 등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위화감 없이 어울릴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과 실내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개방형 도서관의 경우 지역의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고, 실내수영장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피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복합화 이후에 초와 초등학교는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공간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는 곳으로 변화되었다(이경남, 2007).



[그림 IV-10] 초와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모습

출처: 이성룡 외(2011)

당초 학교는 ‘특색 있는 학교’, ‘지역에 개방된 학교’를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효과는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시설 및 지역의 커뮤니티시설로서 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복합시설의 역할을 기대하였고, 이러한 목적에 부응하듯 지역주민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이성룡 외, 2011).

#### 4) 미하마 우타세(美浜 打瀬) 초등학교

일본 지바현에 위치한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는 지역에 열려있는 접근성 높은 학교 만들기를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복합화한 학교이며,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층 건물에 평생교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및 다양한 교육 공간을 배치하였다. 교문과 담을 설치하지 않아 학교와 지역의 경계가 없고, 교실과 복도 사이 경계를 만들지 않아 학생 활동의 범위와 이동성을 극대화하였다. 이 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방향으로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학교와 마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다. 마을 안에 학교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 형태이다. 건물은 남측도로에, 운동장은 그린벨트지구와 일부가 되도록 인접시켰다. 일반적인 학교와는 달리 교사동과 외부가도가 직접적으로 닿아있어 학생들은 등교할 때 교사동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이동하



는 외부가로에 운동장과 교사동이 모두 접해있어 항상 외부로 시야가 닿게 된다. 또한 운동장과 가로 사이에 녹지를 조성하여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는 열린 공원이 된다(이소민, 2019).



[그림 IV-11]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 전경과 외부 가로에서 본 학교시설  
출처: 이소민(2019)

학교의 내부 또한 외부와 마찬가지로 경계가 없는 열린 공간이다. 내부 공간은 학년별 하우스, 풀장, 체육관, 특별교실 등이 서로 연결되도록 순환형 동선으로 되어 있고, 학년별 하우스에는 교실, 위생공간, 워크스페이스, 집회공간, 중정 등이 있으며, 교실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옥외데크를 따라 학생들은 학교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소갑수, 2011).



[그림 IV-12]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 1층 평면도  
출처: 박태희(2022)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는 중정 공간을 중심으로 마치 하나의 공원과 같다. 120m×80m 크기의 대형 플랫폼을 만들고 그 사이로 학생 활동 공간과 큰 교실들을 배치하였으며, 플랫폼 위는 데크 공간을 조성해 계단광장과 또 다른 녹지 공간을 제공하여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던 수업 방식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가능하고, 각종 지역 행사를 데크와 같은 옥외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시킨다(이소민, 2019).



[그림 IV-13] 미하마 우타세 초등학교 내부 중정과 공중 데크 및 수영장

출처: 이소민(2019)

## 라. 국외 사례(일본) 시사점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고령화, 학교시설의 노후화 및 유허교실의 증가 등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일찍 경험한 일본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응하는 정책 중 하나로 1980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심의 공동화 현상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의 통합, 재구조화, 노후화, 유허교실의 증가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전라북도 원도심학교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둘째, 일본의 복합화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이 매우 높고, 보건소,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도 복합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활체육시설

과 주차장 위주의 복합화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며,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아이들의 돌봄 문제 해결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복합화하고, 교문과 담을 세우지 않아도 지역주민이 학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개방적이지만 안전한 공간으로의 복합화를 추구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

넷째, 복합화의 기획 단계부터 학교 관계자, 행정전문가, 건축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우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 등을 거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앙케트와 인터뷰 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이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의 복합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만족도와 이용률이 매우 높으며, 지역주민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다섯째, 복합화의 방향이 학교 중심의 복합화가 아닌 복합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공공 시설들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노후화 되어 증·개축이 필요하거나,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설들의 복합화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추후 유지관리비, 부지 매입비 등의 절감을 통한 공공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여섯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통합되어 있어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함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관리·운영 면에서의 분명한 차이가 발생한다. 문부과학성과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교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시설, 평생교육시설로의 복합화를 추진함에 있어 수월하다.

## 마. 국내 사례

### 1) 서울금호초등학교(20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서울금호초등학교는 1958. 4. 1. 개교하였고, 2001. 12. 21.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복합시설인 금호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였다.

금호동은 고지대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변 도로는 폭이 4~8m이지만 지역 내 주차난이 심하여 이를 해결할 주차시설이 필요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체육, 문화시

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사회학교로서의 복합화 기능(체육, 주차장, 문화 등)이 요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이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1997년 지역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진행하여 학교의 복합시설 건립을 결정하였고, 1998년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 12월 준공하였다. 건물의 소유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지자체에서 20년간 무상사용 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인석, 2019).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교육청은 약 60억 원의 비용 절감 및 다양한 교육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에서 선호하는 학교가 되었고, 구청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체육,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이성식, 2022).

그러나 건물 배치상 주차장과 학교급식 조리실 등이 같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위생 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 조성이라는 공공성과 흑자 운영을 해야 하는 수익성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교육문화관의 협조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그림 IV-14] 서울금호초등학교 조감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

〈표 IV-16〉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개요

구분	서울성동교육청	서울시, 성동구
연면적	11,078㎡	10,869㎡
시설내역	일반교실, 특별교실	수영장, 체육관, 유아방, 헬스장, 에어로빅실, 공영주차장
투자액	110억원+학교부지 제공	114억원
권리관계	소유권	관리운영권(20년)
예산절감	-약 60억원 절감 ·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각종 편의시설 무상 이용)	-약 60억원 절감 ·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기대효과	-지역사회내의 학교위상 제고 · 지역일대에서 가장 선호 학교 · 교육과정운영, 프로그램 지원	-지역주민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 1일 이용객 1,000명 이상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의 자료를 재구성함

〈표 IV-17〉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화 시설·관리 운영 주체별 역할

구분	학교시설	복합시설
관리·운영 주체	학교장	성동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소유권	교육감	교육감(성동구 20년 무상 사용)
관리·운영 조직	학교 행정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관리·운영 비용 부담 방법	· 시설 관리는 학교와 교육문화관이 독립적으로 관리 · 수도,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은 별도로 청구되고, 공동사용 부분은 계량기를 구분 설치하여 계측 후 사용분에 대하여 부담 · 교육문화관 시설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학교에서 담당	
보안관리 주체	학교장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협의체	관리·운영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는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필요할 때마다 업무 관련자 간 협의 실시	

출처: 고인석(2019)의 자료를 재구성함

〈표 IV-18〉 서울금호초등학교 복합화 주요 시설

구분	내용		면적
초등학교	지하 1층 ~지상 5층	일반교실, 특별교실, 행정·관리실, 급식조리실, 전자도서실, 소강당, 화장실, 창고	11,078.24㎡
교육문화관	지하 2층	체육관,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전기실, 보일러실	4,587.18㎡
	지하 3층	수영장(25m 5레인, 10m 3레인), 문화강좌실, 헬스장, 탈의/샤워실, 유아체능단, 에어로빅실	
	지하 4층	창고, 수영장 기계실	
공영주차장	총 168면(지하 1층 교직원 사용), 24시간 개방		6,281.74㎡

출처: 고인석(2009), 오해진(2007)의 자료를 재구성함

## 2) 서울언남중·고등학교(2006)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언남중·고등학교는 학교부지 2,400㎡, 서초구 부지 1,200㎡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건립한 공동사업의 좋은 모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중·고등학교 부지와 학교 중간에 위치한 구청 소유의 도로를 통합하여 건물과 녹지 공원을 함께 조성한 토지, 건물 복합화 사업이며(이재림, 2013),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4,325㎡로 학교 교사와 별동의 형태로 조성하였다. 총 사업비는 185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교육청에서 식당, 특별교실을 위한 건축비 33억원과 서초구에서 수영장, 체육관, 주차장, 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위한 건축비 152억원을 투자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건물의 일부는 교육청에서, 스포츠 시설 및 주차장 등은 지자체에서 투자한 전형적인 학교시설 복합화의 예로 볼 수 있다(이재림, 2013).

〈표 IV-19〉 서울언남중·고등학교 복합화 사업 개요

구분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시 서초구
연면적	2,787㎡	11,538㎡
시설내역	학생 식당, 도서관, 컴퓨터실	수영장, 주민강습실, 정보도서관, 문화강좌실, 공용주차장(191대)
투자액	33억원+학교부지(2,400㎡)	152억원+서초구 부지(1,200㎡)
권리관계	소유권	관리운영권
예산절감	-약 70억원 절감 · 수영장, 음악실, 다목적실, 지하주차장 등 각종 편익시설 무상 이용	-약 110억원 절감 ·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등 학교시설 공용과 토지 무상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기대효과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 교육, 문화 중심 학교	지역주민 문화, 복지 서비스 제공: 인근 공원과 연계하여 복리, 문화커뮤니티 공간 형성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8)의 자료를 재구성함

주요 시설로는 헬스장, 수영장, 에어로빅장 등의 체육시설과 문화강좌시설 등이 있으며, 복합시설 주변 공원과 연계하여 학생과 주민의 쉼터가 되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복합화 사업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는 모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학교는 복합화 사업으로 구축한 특별교실과 식당, 주차장을 학교 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식당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였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주차 문제를 개선하였으며, 공원화 사업을 통해 기존에 우범지역이었던 어두운 골목길을 정비하였고, 지역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이재림, 2013).



〈표 IV-20〉 서울언남중·고등학교 복합화 주요 시설

구분	시설현황	면적(m <sup>2</sup> )	대상	운영주체	비고
지하1층	수영장, 기계실, 전기실	2,202.14	주민, 학생	구청	위탁운영
지하중층	헬스장, 에어로빅실, 주민강습실	1,537.94	주민	구청	위탁운영
지하주차장	191면	5,220.00	주민, 학생	구청	위탁운영
지상1층	유아예체능단	601.67	주민	구청	위탁운영
지상2층	학교급식식당	985.75	학생	학교	
지상3층	정보도서관	932.30	학생	학교	
지상4층	체험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741.93	주민	구청	위탁운영
지상5층	멀티미디어실, 어학실, 정보도서관	578.85	주민	구청	위탁운영
	컴퓨터실	163.08	학생	학교	
지상6층	컴퓨터실, 어학실, 멀티미디어실	732.62	학생	학교	
지상7층	다목적실	609.72	주민	구청	위탁운영
	음악실	46.03	주민, 학생	구청	위탁운영

출처: 최병관(2013)의 자료를 재구성함

문제점은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동선의 차단 문제로 학생 통제에 어려움이 있고, 학교의 학습권과 주민의 편리성이 상충되어 현장에서 상호 위협요인들이 발생하며, 복합시설이 학교 부지에 세워짐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제한과 청소년 식품 판매 제한 등으로 주민 편의 제공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그림 IV-15] 서울언남고등학교 전경

출처: 언남고등학교 누리집



### 3) 화성 동탄중앙초등학교(2016)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는 2015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화성시, LH공사 간 MOU를 체결하고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6년 완공되었다(고인석, 2019). 이음터는 약 2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면적 10,249㎡,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었고, 학교와 공중 통로로 연결된 복합시설로서 세부시설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있다(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표 IV-21〉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개요 및 구성

구분		학교시설	복합시설	이음터 주요시설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지하2층, 지상5층	5층	특화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연면적		12,506㎡	10,249㎡	4층	도서관(디지털자료실, 열람실)
사업기간		2012. ~ 2016. 6.		3층	도서관(어린이자료실, 일반자료실)
사업비		-	약 260억원	2층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실, 미디어실, 동아리실
주요 시설	학교 시설	다목적강당(실내체육관), 학급교실, 지원시설, 관리시설		1층	어린이집, 공용 홀
	복합 시설	어린이집, 마을교육공동체프로그램실, 동아리실, 도서관, 미디어실, 다목적강당, 특화 프로그램실		지하 1층	지하주차장
	운동장	근리공원에 조성되어 학교와 지역주민 공동 이용		지하 2층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2017)의 자료를 재구성함

동탄중앙초등학교는 도서관을 교실로 변경하여 과밀화된 학생들의 수업 공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복합시설의 도서관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운동장은 인접한 근린공원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 복합화 시설인 이음터가 학교와 인접해 있으나 경계는 분리되어 있고, 공중 통로로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만 학교와 복합화 시설이 연결되는 구조이다. 연결 통로에는 학생 안전을 위한 출입문이 있고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잠금장치의 카드키는 교사들이 소지하고 있어 출입 통제가 가능하다. 학교와 복합시설 이용자들의 동선이 분리되어 있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으나,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시에는 이용자와 섞이는 등 약간의 염려는 있다(고인석, 2019).



[그림 IV-16]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전경

출처: 학교시설 복합화 누리집

동탄중앙이음터 복합화 시설은 동탄중앙초등학교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교과 활동 및 방과후 활동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지역주민이 모여 협의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탄중앙초등학교에서는 교과과정에 도서관과 GX실 등을 적극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특화 시설인 ICT프로그램실에는 드론과 3D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전문 장비를 구비해 학교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특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했다(경기도교육연구원, 2017).

학교복합시설이 주는 긍정적인 역할은 또 있다. 학생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설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인근 지역주민들이 모이고 서로를 알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 및 비행 또한 낮아지는 등 효과를 봤다고 한다(노컷뉴스, 2019).

그러나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는 근린공원을 운동장으로 이용한다고 해도, 방과 후에는 운동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힘든 구조이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학생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수업 시간 중에는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없으니, 학생이나 주민 모두가 불편한 반쪽자리 근린공원인 셈이다. 사실상 돈 때문에 학생들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안 그래도 운동 공간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동탄중앙이음터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 교육청, LH의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시설 부지를 나눠 쓰자는 것이며, 학교와 학생에 대한 배려는 경제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미디어와이, 2016).

동탄중앙이음터에는 무료로 운영되는 강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소득이 높은 편이어서 이음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보다는 사설 강좌를 많이 수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화 시설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더욱 필요한 시설이라는 주장도 있다(고인석, 2019).

복합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동탄중앙초등학교는 교육감이, 동탄중앙이음터의 시설과 운동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소유권자가 관리·운영의 주체이고, 시설의 대지 경계,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 운영 및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음터는 화성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교사, 주민, 학부모, 당연직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통해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한다(고인석, 2019).

〈표 Ⅳ-22〉 동탄중앙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관리·운영 주체별 역할

구분	학교시설	복합시설
소유권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관리·운영 주체	학교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 위탁
관리·운영 조직	학교 행정실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관리·운영 비용 부담	·학교와 복합화 시설의 소유와 운영이 분리, 시설의 대지 경계, 건물이 분리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으로 복합화 시설 운영	
운영협의체	학교장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보안관리 주체	·학교와 복합화 시설 전체 운영에 대한 협의체는 별도로 없음 ·이음터는「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 교사, 주민, 학부모, 당연직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출처: 고인석(2019)의 자료를 재구성함

#### 4) 창원 중리초등학교(200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위치한 중리초등학교는 2006년 학교복합화시설 전국 시범사업(8곳)으로 선정되어 경상남도교육청과 구. 마산시의 MOU체결로 학교시설복합화의 선도적 모델이다(경남도민신문, 2021).

중리초등학교는 이전에 따른 교사 신축과 함께 BTL 사업 방식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여 2008년 준공되었고, 학교 교사와는 별도의 형태로 복합시설을 조성했다(이성룡 외, 2011). 복합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786㎡ 규모로 200석(성인용 120석, 학생용 80석)을 갖춘 열람실 및 1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있으며, 다목적실, 에어로빅실, 배드민턴, 탁구장 등 구기 전용 시설과 관중석 등으로 된 체육관도 조성되었다(부산일보, 2009).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학교를 중심으로 복합화하여 교육, 문화, 체육 등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복합화 시설을 민간 재원으로 학교시설과 연계하여 조성·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가용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유웅상 외 2019).



[그림 IV-17] 중리초등학교 전경

출처: 중리초등학교 누리집

복합화 시설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교육청은 별도의 재원 부담 없이 시비 27억 원과 구비 23억 원이 각각 소요되었다. 복합화 시설의 운영·관리는 내서읍에

서 담당하고, 시설의 유지·보수는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다. 지하주차장은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고 무료로 개방하며, 별도의 관리요원은 없다. 다목적실은 09시부터 22시까지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관은 사서를 파견하여 시립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탁구장, 에어로빅실 등은 주민들의 상시 이용이 가능하다(이성룡 외, 2011).

2018년 창원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개방시간(평일 오후 3시 30분~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6시, 매주 일요일과 공휴일 휴관)에 대한 문제 제기(경남신문, 2018) 이후 「창원시 중리초등학교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2021. 3. 31.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일요일도 토요일과 같이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도서관 개관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일요일에도 개방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산회원구 내서읍은 2023년 2월 현재 62,079명(25,289세대)의 인구가 거주하는(창원시 빅데이터 포털 누리집) 지방 중소도시로, 중리초등학교의 복합화 시설은 이러한 중소도시의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이성룡 외, 2011).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해당 복합시설의 운영 주체는 지자체이지만 방화관리자는 학교에서 선임하는 등 운영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학교, 창원시, SPC 운영사 3자간 운영위원회가 3~4년 운영되다가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거의 미미한 실정이다(유용상 외, 2019).

## 5) 당진 대덕초등학교(2021)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대덕초등학교는 국내 1호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학교복합화 시설로써, 2019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충남도내 1호 학교복합화 시설이다. 국비 25억 원 등 총 50억여 원이 투입되었다. 학교복합화 시설은 학생들의 수업공간인 교사동과 연결되어 있고, 연면적 약 2,348㎡, 지상 3층 규모이다(당진신문, 2021).

복합시설은 지하주차장을 비롯해 꿈다락(공공도서관), 꿈도담터(공동육아나눔터), 국민체육센터, 세미나실, 동아리실, IT교육실, 북카페, 음악연습실, 시청각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1학년~3학년 자녀를 둔 지역주민은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평일 방과후 13시~18시, 방학 중에는 09시~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방과후 숙제 지도, 특별활동 등 놀이 지도가 이루어지며,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운영된다. 이러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자녀 돌봄 문제를 정부와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해 해결해 나가는 좋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국제뉴스, 2021).

복합시설 2층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꿈다락은 당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당진 소재 학교에 재학 중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주중(월~금요일) 17:00~21:30, 토요일 09:00~17:3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한다(대덕초 누리집).

## 바. 국내 사례 시사점

첫째, 학교는 기존에 있는 교실, 특별실 외에 수영장, 컴퓨터실, 음악실 등 교육적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설물 활용의 효율성을 확인했고,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토지 매입 비용 없이 체육, 문화시설 및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 확보 및 경제적 이익과 지역 개선 사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둘째,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복합화함으로써 교육, 문화, 체육 등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했던 공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복합화 시설을 민간 재원으로 학교시설과 연계하여 조성·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부족한 가용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언남중·고등학교의 복합화 사례를 통해 학교 및 소도로의 통합 이용으로 학교 공간의 침해 없이 대규모 건축물과 옥외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토지 이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확인했다.

넷째, 학생 안전 문제, 관리 인력의 부족 문제 등으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학교가 많지만 동탄중앙이음터의 사례처럼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모이고 서로를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폭력 및 비행 또한 낮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다섯째, 동탄중앙이음터의 사례를 보면 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학생, 교사, 주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통해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복합건물 준공 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시정과 변동된 사항들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회를 상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 복합화 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복합화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시설 개보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시설관리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여섯째, 국내 학교복합화 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장, 도서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육, 영·유아 및 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된 다양한 유형의 복합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복합화의 의미보다는 ‘학교시설의 확대된 개방 형태’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의 복합화가 필요하다.





원도심학교 시설 활용 방안 연구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 V. 결론

1. 제언

2. 결론



## V. 결론

### 1

### 제언

첫째,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밝고 넓은, 열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학교 내부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역주민이 활발하게 이용하여 더 이상 학교가 어두운 공간이 아닌 밝고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CCTV와 같은 예방 안전시설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학생 안전 및 교육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둔 복합화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와 연계·협력함으로써 원도심학교가 원도심 지역의 중심 시설로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023년~2027년)과 연계하여,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주·군산·익산 원도심 지역에 우선적으로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군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미래교육을 대비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방과후·돌봄 시설을 설치하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합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함과 동시에 학교가 도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학교복합시설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연계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교육청 담당자의 부가적인 업무 수행에 그친다면 해당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수요 조사, 설계부터 추후 운영·관리에 관한 부분까지 세밀한 검토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합화의 기획 단계부터 학교 관계자, 행정전문가, 건축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복합시설 설치 후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학교가 아닌 지자체 또는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해야 한다.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학교 현장에서는 복합화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교복합시설은 다양한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가 어떤 시설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여섯째,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해야 한다. 생활체육 시설, 주차장 시설 위주의 복합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과 지역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교육, 보육, 문화, 예술, 복지, 녹지 시설 등을 갖추어 유아부터 노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복합화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로 복합시설의 설치를 원하지 않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장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덟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학교 및 지자체 관계자, 학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2

## 결론

도심 공동화에 의한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원도심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복합화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학교의 미래교육 공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며, 돌봄·방과후 기능을 강화하고, 세대 간 교류 촉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원도심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들은 학교 부지에 설치하는 시설임에도 학교의 주인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에 맞춰진 시설들로 이루어진 복합화가 많다. 따라서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 시설이 학교에 침범하여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들이 이용하면서 더불어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닌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이라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더욱 살릴 수 있는 복합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복합시설의 설치가 학생을 위한 동선, 구조로 이루어질 것이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운영,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 이들의 공간 영역 구축과 이에 따른 복합시설 건축의 계획적 관점, 안정성과 접근성, 복잡한 행정 절차 업무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인력 구성 및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실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시작 단계인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의 담당자는 물론이고 부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복합화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활동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

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복합시설의 구축을 통해 원도심학교의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를 결심해야 하는 요인을 조금은 줄일 수 있고, 학교로 인해 지역이 활기가 넘치고 밝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구축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운원, 김종구, 손지현. (2016). 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 유희시설 활성화 방안 및 공간적 전략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대상으로- **대한토목학회**, 36(1), 151-156.
- 경기도교육연구원(2017). **학교시설 복합화 가능성과 한계 분석**.
- 고인석(2019). **도시근린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추진 절차의 이해**.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희교실의 실태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 방안 연구**.
- 교육부(2021a).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 교육부(2021b). **2022년도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가이드라인**.
- 교육부(2023a).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
- 교육부(2023b).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 교육인적자원부(2004).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집**.
- 기획예산처(2007). **BTL\_학교복합시설 작품집**.
- 김경은(2020). **택지개발지구 내 초·중학교 시설의 활용 및 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천안시 쌍용동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15). **학교시설 복합화 운영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창숙(2020). **학교 유희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수요자 인식조사 연구 -원도심과 신도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자, 최병관, 문종덕. (2017). **학교시설 복합화 가능성과 한계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2017-02.
- 류호섭(1999). 교육시설의 복합화의 개념 및 필요성. **교육시설학회**, 6(2), 55-60.
- 류호섭(2002). **일본초등학교시설의 발달 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 9(6), 5-13.

- 류호섭(2017). **일본 학교건축 정비 제도의 발달동향 및 활용 현황 고찰로 본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17-021-04.
- 박태희(2022).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내 공공시설 확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호용(2023).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국내외 작은학교 통합 사례. 전북교육정책 오늘, 4(5), 5-6.**
- 소갑수(2011). 최근 일본 교육시설의 경향. **한국교육시설학회, 18(4), 62-68.**
- 신진용(2008). **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의 사례분석과 개선방향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병욱, 이재훈(2008).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4(4), 117-124.**
- 오해진(2007). **학교 복합시설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시설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웅상(2019). 생활SOC와 학교시설 복합화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시설학회, 27(3), 7-10.**
- 유웅상, 이재림, 송경희, 마정근, 문종덕(2019).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한 미래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 **미래교육환경학회.**
- 유인자(2021). **인천 원도심학교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생활SOC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준영(2019). 학생중심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유휴교실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경기도 지역 유휴교실의 실태와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3), 661-676.**
- 윤현기, 이재림, 김무웅(2022). **2022그린스마트스쿨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자 기본교육**. 한국교육개발원, 2022-90.
- 이광민(2021).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남(2007).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학(2021). **지역사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시설복합화 개선방안 - 서울 당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룡, 이외희, 이동훈(201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1-10.
- 이성식(20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공공·문화체육시설 복합화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민(2019).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공유공간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찬, 민현준(2018). **학교시설 복합화 시설유형의 타당성 재정립에 관한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의 복합화 시설유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38(1), 56-59.
- 이재림(2013). **국가재정 운용측면에서의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효과성 분석**.
- 이지예(2019). **학교 유휴시설 제안 사업에 나타난 활용 유형 분석**. 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재(2007). **초등학교 시설의 복합화 계획에 관한 연구 -커뮤니티 시설과 교육 공간의 복합화 계획-**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라북도교육청(2022a). **2022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계획**.
- 전라북도교육청(2022b). **2023~2027학년도 초등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 전라북도교육청(2022c). **2023~2027학년도 중학교 중기 학생배치계획**.
- 정이성(2016).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 인식도에 관한 조사 연구 -전주시 원도심 권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진일, 변재연, 서상현(2008). **학교시설 복합화의 현안 진단 및 활성화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최병관(2005). **교육시설의 민간투자사업(B.T.L)**, 대한건축사협회, 87-92.
- 최병관(2006). **영국의 학교복합화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사례**. 한국교육시설학회,

13(4), 59-64.

최병관(2013). 동탄2신도시 초9 학교시설복합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대한건축학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202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청별 학교시설 복합화 사례**.

한국교육개발원(2009). **학교시설 복합화 실행모델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5).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복합시설 업무 담당자 기본교육**.

황성혜(2010).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요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5년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 진입...절반 이상 “노후 준비하고 있어요”(매경헬스, 2022).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4557316&memberNo=2923372&vType=VERTICAL>

3년의 노력, 일상 속에서 누리는 우리 동네 생활SOC. (20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46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내 1호 생활SOC 공모사업 학교복합화 ‘당진 대덕초’ 개교(당진신문, 2021)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9075>

당진시, ‘대덕 꿈도담터 공동육아나눔터’ 개소식...3월 2일부터 운영(국제뉴스, 2021).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73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생활SOC(202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동탄2신도시 긴급점검] 학교 운동장마저 없애버린 잔인한 어른들(미디어와이, 2016).

<http://www.mediawhy.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98>

마산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등 복합시설 준공(부산일보, 2009).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901290000055>

전국에 방치되고 있는 빈 교실 6,200여 개에 달해(베타뉴스, 2017).

<https://www.betanews.net/article/750080>

전라북도교육청 누리집. <https://www.jbe.go.kr/index.jbe>

중리초등학교 누리집. <https://jungri-p.gne.go.kr/jungri-p/main.do>

창원 중리초등복합시설도서관 일요일 개방 확대 운영(경남도민신문, 2021).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313>

학교시설 복합화 누리집 [xn--9d0bs01a17cj2bdu5b4c21f.kr](https://xn--9d0bs01a17cj2bdu5b4c21f.kr)

해외 학교만 최고? 국내 학교도 모범 사례 있다(노컷뉴스, 2019).

<https://www.nocutnews.co.kr/news/5224916>.

美浜打瀬小学校施設見学会 (yokochou.com)